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

정체성 형성

— 2010년대 대학생 활동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이 다 혜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 정체성 형성

- 2010년대 대학생 활동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배 은 경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이 다 혜

이 다 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위 원 장	이 다 혜	(인)
부 위 원 장	신 상 숙	(인)
위 원	배 은 경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대학 내 여성주의 그룹에 참여하여 현재 활동 중인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 정체성 형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학 내 여성주의 그룹 활동가의 경험을 당사자 목소리를 통하여 포착하고, 이를 통해 ‘단일한’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전제하지 않고도 페미니스트 정치 실천이 가능할지 모색해 보았다. 또한 2010년대 초반 한국의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처해있는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2010년대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현실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상당히 비판적이다. 대학에서의 여성주의 세력은 축소되고, 가시화된 페미니즘 이슈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페미니즘 운동이 단일한 운동 주체를 구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러한 시각이 “하나의 범주로서의 ‘여성’ 해체”를 곧 “페미니즘 운동 ‘주체’의 부재”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진다.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들 간의 차이와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여기에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안티페미니즘 통념까지 더해져 오늘날 대학생들이 ‘페미니즘’ 그 자체에 대해 갖는 태도와 정체성 구성을 둘러싼 담론적 환경(안티페미니즘)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검토 없이 쉽게 운동의 현 상태를 단정 짓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공통의 이해를 갖는 운동 주체의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 내 여성운동이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는 시각은 행위 주체가 단일한 정체성을 공유해야 하며, 그 목표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 운동 방식과는 달리 페미니즘 운동의 속성상 공식적인 조직 이면의 비공식적 구조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비록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 내 개인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경합하고 있고 페미니즘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을 곧 조직에 균열을 내거나 운동 역량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 시내 4년제 대학교에서 여성주의 그룹 세 곳을 선정하여 그 구성원들을 심층면접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주의 그룹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정체성으로서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은 연구참여자들의 젠더 경험과 대학생활 경험, 그리고 주변의 담론적 환경(안티페미니즘)에 대한 대처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이렇게 구성원들의 의식과 정체성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이 여성주의 그룹과의 관계를 맺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 그룹이 구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합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심층면접과 참여관찰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각 대학에서 페미니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활동 양상을 보면 집단 내에 공유된 페미니즘 운동 목표를 실천해나가고 있다기보다는, 개인들이 우연히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각자의 젠더 경험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생활양식을 구성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활동가들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면하게 되면서, 자신의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유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대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면하는 장면에 따라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감추면서 다르게 연기하기
(acting out)

둘째, 여성우월주의나 여성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페미니즘
경계 확장하기

셋째, ‘여성주의자’ 정체성에 대한 내적 갈등과 문제 회피

넷째, ‘여성주의자’ 정체성에 대한 타인의 규정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활동에 내
재적인 의미 부여하기

연구참여자들은 페미니즘과 개인적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정도에 따라 위 전략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각 전략에 대한 해석과 태도는 여성주의자 정체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내부구성원들의 다양한 정체성은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이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구성원간의 소통 속에서 인정을 얻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구성원들은 “무엇이 페미니스트로서 적절한 행동양식이고, 페미니즘에 적합한 실천인지” 매 순간 확인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주의 그룹의 공동체 역동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어떤 ‘단일한’ 행위 주체를 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러한 주체를 전제로 대학 내 페미니스트 정치가 실천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주장하기’는 개인이 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 구성원들의 인정과 합의를 거쳐 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상황을 평가해 보자면, 개인들이 갖는 여성주의자 정체성 여부나 그 정체성의 단일성과는 무관하게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에서는 모종의 페미니스트 정치가 실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단기적인 정치적 행동은 가능할지 모르나 집합적 행동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조직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은 현재와 같은 소규모의 분산된 운동으로 고착되거나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이후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성원의 ‘재생산’과 더불어 집단의 운동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자료 보존과 역사의 기록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 활동가의 졸업이나 개인적 상황 변화가 곧바로 운동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도록, 여타의 다양한 페미니스트 그룹들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필요할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의 실현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 주체들이 특정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기 때문이다.

20대 대학생 활동가들의 당사자 목소리를 통해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처해 있는 상황을 검토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페미니스트 정치’와 ‘정치적 주장하기’에 대한 재해석에 있다. ‘정체성의 정치’와 ‘차이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주체(정체성)를 강조함으로써 빠졌던 딜레마, 즉 현재 한국의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역동을 읽어낼 수 없었다는 점을 극복하고, 개인적 정체성과 공동체의 활동이 상호작용을 통해 갱신되고 구성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페미니스트 정치의 이론적 초점을 ‘정치적 실천’의 문제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정치적 주장하기’는 고립된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여성운동의 주체는 젠더 관계와 집단적 실천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주요어: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 안티페미니즘, 여성주의 유연화, 대처 전략, ‘정치적 주장하기’, 페미니스트 정치

학 번: 2010-20205

〈목 차〉

제 1장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과제	1
2. 연구의 배경과 이론적 자원	6
1) 젊은 세대의 ‘탈정치화’ 논의와 당사자 목소리	6
2) 사회운동과 페미니스트 조직	9
3) 정치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페미니즘	11
3. 연구방법	13
1)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13
2) 연구 대상 선정 및 연구 수행 과정	15
4. 논문의 구성	18
제 2장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과 대학생 활동가 ..	20
1. 대학 내 여성운동의 역사와 명명의 문제	20
1) 대학 내 여성운동의 변화와 역사적 관계	20
2)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 명명의 문제	24
2. 대학 내 여성주의 그룹의 특징	26
1) (가) 학교 총여학생회	26
2) (나) 학교 여성주의 모임	28
3) (다) 학교 여성주의 모임	30
3. 연구참여자들의 특징	32
제 3장 페미니즘과 ‘여성주의자’ 정체성	37
1. 페미니즘과의 만남과 이해방식	38

1) 페미니즘과 만나게 되는 계기	38
2) 젠더 억압 경험과 페미니즘 수용	42
3) 연구참여자들이 이해하는 페미니즘	45
2. 안티페미니즘 통념에 대처하는 다양한 전략	49
1) 전략1: 대면하는 장면에 따라 정체성 드러내기-감추기	49
2) 전략2: 페미니즘 경계를 확장하기	52
3) 전략3: 심리적 갈등과 문제를 회피하기	54
4) 전략4: 내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57
3. 개인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에 따른 태도	59
1) 전략으로서의 ‘여성주의자’ 정체성 유연화	59
2) 지향으로서의 유연한 ‘여성주의자’ 정체성	62
3) ‘여성주의자’ 정체성에 대한 부인	64
4) 정체성에 대한 명명 거부	67
4. 소결	70

제 4장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가능성과 전망 73

1. 각 학교별 페미니스트 정체성의 분포와 해석	73
1) (가) 학교: 집단 내의 갈등과 합의	75
2) (나) 학교: 내부 결속력으로 유지되는 조직	76
3) (다) 학교: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잠재적 갈등	77
2. 학교별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 내부 역동	78
1)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 내에서의 갈등사례	79
2)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 내에서의 인정사례	83
3. 학생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	87
4. 다양한 정체성‘들’과 페미니즘 실천의 가능성	91
1) 단일한 정체성을 전제하지 않는 행위 주체	91
2) ‘정체성’ 논의에서 ‘정치적 실천’으로의 전환	92

제 5장 결론	97
1. 집합적 경험 전수하기	101
2. 그룹간의 연대, 확장하기	101
3. 구성원의 ‘재생산’	102
참 고 문 헌	103
〈Abstract〉	107

표 목 차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징(2011년 기준)	34
〈표 2〉 (가) 학교 총여학생회 정책 기조 토론 내용	81

그 림 목 차

〈그림 1〉 운동조직들간의 상호작용과 변화 흐름	22
〈그림 2〉 연구참여자들이 쓰는 다양한 전략과 ‘여성주의자’ 정체성 형성	71
〈그림 3〉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 내부 구성원 간의 정체성 위치를 나타내는 도표	74
〈그림 4〉 (가) 학교 총여학생회 내부구성원의 여성주의자 정체성 분포	75
〈그림 5〉 (나) 학교 여성주의 모임 내부구성원의 여성주의자 정체성 분포	76
〈그림 6〉 (다) 학교 여성주의 모임 내부구성원의 여성주의자 정체성 분포	77
〈그림 7〉 보편적 개념의 ‘페미니즘’과 동일시 정도에 따른 행위 주체들의 위치	91
〈그림 8〉 집단 내 인정과 합의로 ‘구성되는’ 페미니즘	95

제 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¹⁾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페미니스트로서의 단일한 정체성을 전제하지 않는 페미니스트 정치 실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처해있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의 대다수는 가부장제의 ‘피억압자’로 단일하게 상정되는 여/성 정체성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성차별이 있다고 보지만 자신을 ‘(잠재적) 피해자’로 규정짓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여성들은 성차별이 없어졌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대중 여성들 사이에서 젠더 인지의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여성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인식들이 생기고 있어 대중들 사이에서는 페미니즘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이 때 대중적 인식에서 이해되고, 통용되는 ‘페미니즘’의 정의는 고정적 개념으로, ‘여성 억압’이라는 공통 경험을 공유하는 ‘여성’들의 집합적 행위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중의 의식에서 페미니즘의 의미는 ‘여성’ 문제 또는 젠더‘만’을 다루는 것으로 성차별, 여성폭력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한 페미니스트들의 실천, 이론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들 간의 차이와 ‘여성’

1) 본 연구에서는 ‘여성주의’와 ‘페미니즘’, ‘여성주의자’와 ‘페미니스트’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라는 말은 단순한 페미니즘의 번역어가 아니며, 두 용어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어 왔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주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 ‘진보적’ 여성운동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여성운동의 원리와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 쓰이고 있는 ‘여성주의’는 이전 세대 운동과 구별 짓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기보다는 페미니즘의 대체 단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각 용어의 의미와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2장 1절 29페이지를 참고.

2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 정체성 형성

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도 페미니즘(또는 여성 운동)이 필요한가? 아직도 우리의 삶에 페미니즘 개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낳으며, 페미니즘의 정치적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발생시킨다.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여성을 하나의 단일 범주로 묶을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2000년대 이후 한국 여성운동의 중요한 의제로서 ‘차이의 정치’가 등장하게 되었다. 여성들 간의 차이, 집단으로서의 ‘여성’ 내부의 차이가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사회에도 다양하고 이질적인 페미니즘‘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이영자, 2003).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여성들의 다양한 위치성과 다중적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게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후의 문제들이 ‘이 차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에 고착되면서 각 집단 간의 연대와 소통보다는 적대와 고립이 부각되어버리는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고도 평가받는다(임국희, 2009).

이렇게 페미니즘이 안팎으로 직면하게 된 “하나의 범주로서의 ‘여성’ 해체”는 곧 “페미니즘 운동 ‘주체’의 부재”로 해석되고, 그러면서 페미니즘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읽히곤 한다. 페미니즘의 ‘위기’에 대한 논의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 근거로 뒷받침된다. 여성학 강좌 개설 수 및 수강생 수의 감소나 대학원에서의 여성학과 폐지²⁾와 같은 페미니즘 페다고지의 위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급격히 위축된 여성 운동, 반여성적·반페미니즘적(antifeminism) 사회 분위기, 그리고 ‘여성을 대변한다고 인식되는 공적 기관인 여성가족부 축소 및 폐지 논란 등이 그것이다(김영옥, 2008). 이를 살펴보면 페미니즘 ‘위기’에 대한 논의는 페미니즘 운동의 위기, 운동 주체의 정체성 위기, 페미니즘 사상의 위기 등 위기의 대상, 차원이 구별되지 않은 채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 사이의 차이뿐만 아니라 젠더 인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정치적 행동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이다.

페미니즘 운동이 처해 있는 이 같은 상황과 마찬가지로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 역시 비슷한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2) “이화 안·밖의 여성학, 위기 통해 성찰을 모색하다”. 『이대학보』. 2008.12.1

개인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학 문화는 많이 변화하였고, 그와 함께 학생운동의 침체되었다. 정치적 성향의 학생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또는 무관심이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면서 ‘학생회’는 더 이상 대학 문화를 이끄는 주류 집단이 아니게 됐다.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에서는 ‘비(非)운동권(이하 비권)’ 학생회 또는 ‘반(反)운동권(이하 반권)’ 학생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학생운동조직은 대학사회에서 고립되어갔고, 그 중에서도 더 비주류에 속해 있었던 총여학생회, 여성위원회와 같은 여학생 자치 기구들은 더 빨리 사라져 갔다. 이러한 분위기는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는데.³⁾ 한편, “운동권 VS 비권 또는 반권”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의 ‘복지’만을 강조하는 비정치적 총여학생회가 등장하였다.⁴⁾ 이러한 여학생 그룹의 주요 활동과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없어졌다고 보거나 그 정도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2012년 현재, 학생사회에서 이념적 대결 구도는 상당히 수그러들었고 그 가운데 대학 내 학생 운동조직과 여성주의자 모임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그룹들의 활동은 1990년대 중후반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는 그 양상이 매우 다르다. 안티페미니즘 통념 속에서 ‘페미니스트’로 규정된다는 것은 사회적·정치적 소수자와 비슷하게 대중들로부터의 고립과 배제를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⁶⁾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

3) “앗! 여학생회가 사라졌다.... 나서는 후보 없어 총학에 속속 귀속”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0

4)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이러한 흐름은 다른 지역에서도 1,2년 사이의 간격을 두고 연쇄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시기를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간 시간 차가 있기 때문이다.

5) (가) 학교 총여학생회 2006년도 선거 정책 자료집을 보면 “페미니즘의 운동 시각 청산. 참된 의미의 남녀 평등을 원한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가부장제 피해자인 ‘여성’의 자기 권리 주장임을 의미한다. 이들의 주요 주장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은 이미 많이 완화되었는데, 여전히 여성들이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페미니즘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된 의미의 남녀 평등’은 이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페미니즘처럼 남성을 역차별 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여기서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이라고

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 페미니즘에 대해 일관된 태도로 표현하기보다는 대면하는 대상에 따라 때로는 온건하게, 때로는 급진적으로 발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탈정치화 된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이들은 또한 자신을 여성주의자로서 일관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다중적, 가변적인 자기 인식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활동가 개인들의 다양한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에서는 여성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실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과거 사회운동은 운동의 목표와 대의명분(즉, 집단의 목표와 정체성)을 곧 활동가 개인의 정체성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90년대 대학 내 여성운동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전개되었으며(김보명, 2007), 집단의 정체성과 운동 목표는 곧 집단 구성원들의 개인적 정체성으로서의 페미니스트(또는 여성주의자) 정체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⁷⁾

그러나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움직임들은 이전 운동과는 다른 경향들을 보인다.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반드시 ‘여성’ 억압을 근거로 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공통의 페미니즘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구조 안에서 관련 활동을 시작했기보다는 각 개인들이 우연히 페미니즘을 만나 젠더적 경험을 개별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생활양식을 구성해 가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그룹 안에서도 구성원마다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상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 주체들의 다양하고도 불분명한 정체성이 운동의 역량을 훼손하고 있는가? 아니면

표현하는 것은 활동 당사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여성주의적인 것, 여성주의 운동’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명칭에 관한 논의는 2장 1절 30페이지 참고.

7) 여기서 1990년대 후반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이 제기한 ‘여성’은 이전 여성운동에서 사용된 ‘여성’과는 그 의미가 같지 않다. 여성주의자 집단의 등장 이후의 ‘여성’은 생물학적 성별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대학 내 여성주의는 정체성과 차이를 중요한 주제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여성’ 정체성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로서의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의 실천적 주체로서의 ‘여성’을 의미하기도 했다(김보명, 2007 재인용). 그러나 이전 시기 여성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집단적 범주로서의 여성 정체성에 기반한 여성주의 운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정체성과 ‘개인적’ 정체성을 일치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운동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인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단계의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은 단일한 운동 주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운동 목표를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성원간의 다양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실천을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여성주의 운동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현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페미니즘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적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해석하는지 보도록 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이 페미니즘을 접하고, 관련 활동 그룹에 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성별(gender) 억압 경험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지 평가해 본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처해 있는 담론적 상황 속에서 현재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다양한 전략들을 보고, 그것을 통해 페미니즘 관련 개인적 정체성을 어떻게 재생산, 유지, 그리고 갱신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의 자기 진술과 활동 내용을 통해 그룹 내부 역동을 보면서 페미니스트로서의 단일한 정체성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페미니스트 정치 실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다룬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 전망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인다.

2. 연구의 배경과 이론적 자원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향상되었고, 사회 진출 또한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회뿐만 아니라 위기 또한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현재 20대는 경제적 취약함으로 인해 삶에 대한 폭넓은 선택권을 박탈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회는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잠재해 있는 사회적 위험을 개인 또는 개별 가족들이 알아서 책임지는 구조인데다가(이재열 외, 2007)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되면서 성별 구분 없이 모두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보여진다. 이로 인해 계층 간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은 부각되지만 그 속에서 특별히 젠더화된 불평등은 비가시화 되기 쉽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태도와 인식은 예전과 다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권리는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젊은 여성들에게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위기, 성차별에 대한 대처는 공통 집단의 저항에 의한 것보다는 개별 여성들의 개인적 전략에 달려있는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이 절에서는 젊은 세대 여성들이 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가치들에 대체로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지속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이론적 자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젊은 세대의 ‘탈정치화’ 논의와 당사자 목소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치 개혁적 성향과 대조되는 보수정권⁸⁾의 출범 이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회적인 것, 진보적인 것,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30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8) 그러나 1997년 IMF 사태 이후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펼쳤다는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현 정부보다 더 개혁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의 후퇴가 나타나면서 현 정권의 보수성이 한층 더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다.

자주 지목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담론이 ‘88만원 세대’와 같은 세대론이다. 이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20~30대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계급 경험을 공유하기보다는 개별화되어 있으며(박권일·우석훈, 2007),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젊은 세대가 사회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⁹⁾ 이 같은 주장들은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화’와 ‘탈정치화’를 함의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여겨지곤 하는데¹⁰⁾, 그러한 고정관념의 연장선에서 등장한 것이 ‘포스트페미니즘(postfeminism)’¹¹⁾적 징후이다. 포스트페미니즘이 다루고 있는 현실에서의 젊은 여성들 대다수는 여성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는 지지하지만,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페미니즘적 실천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들의 성적 실천의

9) 보수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2012년 총선의 결과를 두고 20대의 낮은 투표율을 문제 삼은 ‘20대 개새끼론’은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대, ‘개새끼’와 ‘영웅’ 사이”, 《시사in》 2012.05.03 참고

10) 2012년 총선 투표 결과가 보수당의 승리로 나타난 것을 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20대 젊은 여성들의 낮은 투표율과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빠르게 유포되었다. 그러나 후에 이러한 투표율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사회 통념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여겨지는 집단인 20대/ 젊은 여성들의 투표율의 증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선관위 공개에 따르면 18대 총선에서 19대 총선 투표율은 만 19세, 20대 전반의 투표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의 투표율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공개 19대 총선 투표율 분석해보니... ‘60대 이상·20대 투표율’ 12월 대선 승패 가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2.06.19 참고

11) 홀(Elaine J. Hall)과 로드리게(Marnie S. Rodriguez)는 대중 담론에 따른 ‘포스트페미니즘’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것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여성운동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정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사와 글에서 나타나는 ‘포스트페미니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포괄적 정의를 내린다. (Hall&Rodriguez, 2003) 포스트페미니즘 현상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여성운동에 대한 지지가 제2의 물결 이후 1980년에서 1990년 동안 감소해 왔다.
- ② 안티페미니즘(antifeminism) 정서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증가하였다.
- ③ 젊은 여성들이 여성운동이나 페미니즘이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믿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을 의미한다.
- ④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no, but)’ 버전의 페미니즘이 많아지고 있다. 그들은 동일 임금, 경제적 독립, 성적 자유, 재생산에 대한 권리는 지지하지만 스스로 ‘페미니스트 딱지’를 붙이는 것은 꺼린다.

자율성 확보와 사회·경제적 독립의 증가는 페미니즘과 같은 집합적 사회운동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독립된 ‘개인’의 노력과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해진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메시지는 젊은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은 사회 변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실현을 위한 개인적인 도구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Zaslow, 2009). 문제는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드센 여자 = 이대 출신= (몸쓸) 여성가족부 = 꼴페미’를 거쳐 이기적인 여자들의 근거 없는 자기주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전희경, 2012).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안티페미니즘 통념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페미니스트’라고 낙인찍히고 고립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젊은 여성 당사자들이 실제로 페미니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제도 교육 안에서 전달되는 페미니즘을 대학생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몇몇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연구자에 의해 대상은 ‘관찰’되지만, 실제로 페미니즘이 20대의 삶과 어떤 접점을 이루고, 실천되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김영옥은 교수법 자체가 삶의 현장으로 깊이 파고들어가야 한다고 보며,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페미니즘 페다고지의 비전과 전략은 더욱 적극적인 페미니즘 의제의 개발,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한 연구주제, 그리고 강의 참석자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영옥, 2008). 이수영은 자신이 맡았던 학부 수업에서 학생들이 젠더 관련 문화현상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고찰’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의식을 진단하고자 했다(이수영, 2010).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현 상황을 20대들이 ‘페미니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논의는 특정 세대를 ‘탈정치화’ 성향을 갖는 정치적으로 무력한 존재로 규정하고, 본질화할 우려가 있다.

2000년대 대학 여성주의자 집단 등장 이후 이들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그 후 학생운동의 침체와 안티페미니즘 통념이 확산되면서 변화된 대학 사회와 대학 여성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현재 대학에서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실천 전략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성들이 공통의 이해나 젠더 억압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도 페미니즘적 실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 프리만(Jo Freeman)의 페미니스트 조직과 운동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사회운동과 페미니스트 조직

‘사회운동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두 이론 중 하나가 적용되어 왔는데, 첫 번째는 ‘집합행동(collective behavior)’이고, 두 번째는 이해집단(interest-group)과 당사자(party) 형성에 관련한 것이다. 전자는 운동의 자생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운동의 구성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 프리만은 두 이론 다 운동의 발생과 기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본다(Freeman, 1973).

누구나 개인적으로 현실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불만이 나 욕구는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확인되고 네트워크 안에서 일반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때 비로소 특정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반드시 관료적이고, 조직적인 체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프리만은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있었던 젊은 여성들에 의한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의 발생과 전개 과정을 보면서 운동이 가시화되기 이전 토대들에 주목한다. 젊은 여성들에 의한 페미니즘 운동(the younger branch)¹²⁾은 NOW(National Organization of Women, 전미여성기구)로 대표되는 이전 세대의 운동(the older branch)보다 덜 조직적이고, 느슨한 체계를 갖고 있었지만 이들의 소규모 네트워크가 훗날 제2의 물결의 주요 동력이 되었음 보여준다. 미국의 1960년대, 70년대 페미니즘 운동 사례를 보면 각 그룹의 조직 구조(structure)와 운동의 조직적 기

12) 그녀는 자신의 연구에서 이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이전 세대 운동 집단(개혁적 여성운동 또는 여권운동)과 대별되는 ‘급진적(radical)’이나 ‘여성해방(women’s liberation)’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데, 여성운동을 다룰 때 전통적인 좌우 스펙트럼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용어가 이들의 운동 방식의 차이를 적절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Freeman, 1973)

반에서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후 운동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NOW로 대표되는 이전 세대 운동 그룹들은 관료적이고, 상의하달식의 체계를 가진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하나의 페미니즘 이슈로 집중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적 조직 기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들이 내부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Freeman, 1973).

반면에 젊은 여성들의 페미니즘 운동은 탈중심적이고, 분절적이었으며, 전국 조직으로 연결되어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은 학생운동과 신좌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조직에 능숙했다. 이와 같은 젊은 여성들의 페미니즘 운동은 사회제도적 변화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의식고양 그룹(consciousness-raising rap group)이나 지역행동 프로젝트 등 개인의 변화를 강조하는 활동들을 활발히 했다. 이러한 전략은 사회변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자기 성찰의 늪'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종종 받기도 했다. 그러나 프리만은 페미니즘으로 의식화된 주체들이 비공식적인 구조 안에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crisis)나 반여성적 분위기와 같은 외부 자극과 만나게 되었을 때 빠르게 급진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Freeman, 1973). 프리만은 이들 각각의 운동 전략의 차이가 이데올로기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운동 조직의 구조적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강조한다(Freeman, 1975).

이상의 프리만의 주장을 현재 한국 사회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에 비추어 본다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공통의 젠더 억압적 경험과 페미니즘 수용 여부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페미니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운동 주체들을 묶어주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운동 조직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 유연한 구조가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유지시켜주는데 유용한지에 관한 것이다.

운동이 사회제도적 변화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비가시화 되면 페미니즘 운동이 쇠퇴한다고 보기 쉽다. 그러나 공식적인 조직이 약해졌다고 해서 운동의 내적 구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운동의 목표가 비록 '개인'이

나 지역에 한정적으로 맞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페미니즘 사상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소규모 네트워크가 살아있고, 그 공간에서 소통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개별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회에 대한 불만들은 개인의 문제에서 집단의 의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일단 집단의 공통된 문제의식이 만들어지고 나면 몇 가지 외부 자극을 통해 행동의 기회를 얻게 될 때 가시화된 운동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렇다면 일련의 집단적 정체성을 갖추게 된 후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을 유지시켜주고 특정 정치적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다음 이론적 자원을 통해 보도록 하겠다.

3) 정치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페미니즘

페미니즘이 ‘여성’이라는 범주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페미니즘 운동 고유의 공통 주체는 없어지는 것인가? 페미니즘은 ‘여성’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것인가? 제릴리는 “페미니스트 정치의 위기는 페미니스트 정치의 주체가 다양해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일한 주체를 요구하는 페미니즘의 개념/인식론 그 자체에 있다(조주현, 2010 재인용)”고 보았다.

운동에 있어 단일한 주체를 요구하는 인식론에 따르면 사회 운동은 어떤 행위성(agency)을 요구하며, 이러한 행위성은 행위자, 즉, 운동의 주체를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므로 ‘차이의 정치’의 등장으로 페미니즘 운동의 주체라고 여겨지는 ‘여성’ 범주가 불명확해지면서 페미니스트 정치의 실천을 위한 정치적 협력의 발판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고 이해되곤 한다.

버틀러는 본질화된 젠더 정체성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반복된 연기를 통해 양식화된 젠더를 ‘수행(performance)’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행위 뒤의 행위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버틀러, 2008). 제릴리는 이러한 버틀러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여성’의 토대는 보편주의나 본질주의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버틀러의 ‘여성’ 범주나 정체성 논의가 개인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여성’ 범주 혹은 주체의 일관성 문제와 같은 인식론적 문제에서 벗어나 “정치적 주장하기(political claims)”와 같은 정치적 문제로 이

동시키자고 제안한다(조주현, 2010).

위와 같은 제릴리의 주장이 주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보다는 ‘정체성의 정치’와 ‘차이의 정치’ 둘 다 개별 여성의 현재 경험에 근거하여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정치적 행위자’인지 제대로 정의할 수 없다는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정치적 주장이나 행위는 개인 차원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정을 통해 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본래 그 전부터 단단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집단 구성원들의 인정 속에서 핵심 부분은 중심부를 차지하며 유지되지만 그 경계는 동의, 동의하지 않음으로 사라지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유동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토대로 하는 정치적 행위만 페미니즘이 되는 것은 아니다(조주현, 2010).

모한티는 “자아의 경험은 때로 불연속적이며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비전으로 일반화되기 전에 반드시 역사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모한티, 2005 재인용)”고 말한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여성이든 젠더적 여성이든 그것에 근거한 “보편적 자매애”라는 것은 없다. 개인들의 다양한 정체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회·역사적 배경에서 일어나는 투쟁의 공통 맥락을 찾고, 그 공통 맥락 속에서 “정치적 자매애”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한티의 “정치적 자매애”에 관한 논의와 제릴리의 페미니스트 정치 이론은 ‘여성’ 범주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페미니스트 정치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본 연구는 두 연구자의 논의에 기초하여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 안에서 개인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경합하고 있고, 페미니즘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을 곧 조직에 균열을 내거나 운동 역량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이 처해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본 논문은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상황을 활동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 시내 4년제 대학교에서 여성주의 그룹 세 곳을 선정하여 그 구성원들을 심층면접하였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과 태도들을 살펴보고 주변의 담론적 환경에 대한 대처 전략을 보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으로 얻어진 자료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성격을 가진 자료임을 고려하여, 대학 내 여성주의 그룹의 구체적인 활동 과정에 대한 참여관찰을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

현재 대학에서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를 보면 상당히 유동적이며, 내부 구성원들 간에도 그 이해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페미니스트로서의 집단 의식과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가 서로 관련성은 있지만, 집단 의식이 필연적으로 운동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젠더 정체성이 자동적으로 페미니스트 지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Buschman & Lenart, 1996). 이들이 젠더 관계에서의 불평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페미니즘을 이해하는지 고찰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젠더 경험과 태도 전반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파멜라 애론슨은 포스트페미니즘에 대한 자신의 연구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를 부여하지 않고 연구참여자들 스스로 그것에 대해 정의해보라고 했을 때 오늘날 페미니즘 의미의 모호함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말한다(Aronson, 2003).

본 연구에서는 애론슨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참고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질문방식을 통해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페미니즘

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개인들 간의 미묘한 차이들을 보고자 하였다. 또한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에서의 복잡한 태도들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집단 내에서의 관계, 개인의 성장과정에서의 경험을 들으면서 이들이 ‘페미니즘을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지, 감출 것인지, 대중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협상들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였다.

심층면접은 2011년 7월 말부터 2012년 3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이 페미니즘을 수용하게 되는 생애사적 맥락을 보기 위해 1차 인터뷰는 구술생애사 형식으로 현재까지의 삶을 인터뷰하였다. 구술하는데 있어 시기적인 순서는 연구 참여자의 자율에 맡겼다. 2차 인터뷰에서는 대학 생활과 페미니즘 관련 활동,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대처하는 전략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1차 인터뷰에서 두 가지가 모두 구술된 경우 따로 2차 인터뷰를 갖지 않고 녹취록을 검토하면서 추가 질문을 하였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이 일상적으로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전에 미리 보여주고 시작하였다. 각 인터뷰는 1회마다 약 1시간 반에서 3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의 학교 근처 카페나 음식점, 학생회실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 동의하에 MP3 파일로 녹음하였고,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1, 2학년의 경우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4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내부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소통 과정을 보기 위해 참여관찰을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 (가) 학교의 경우는 2011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2012년 총학생회 선거 준비를 위한 정책 토론 자리에 두 차례 참여 관찰을 하였고, 논의 과정을 부분적으로 기록하였다. (나) 학교는 2011년 10월 중순에서 11월까지 여성주의 모임의 정기모임과 외부활동(학교 외부 여성학 강연 참석 등)에 본인이 함께 참석하여 관찰하였고, 이들이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사용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한편 (다) 학교 여성주의 모임의 경우에는 대체로 3, 4학년들이 많았고, 인터뷰만으로도 충분히 본인들의 생각들을 풀어내고 있다고 판단하여 따로 참여관찰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중 몇몇은 개인적인 만남이나 성폭력 사건 지원, 세미나 등을 통해 지

속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러므로 인터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만남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갖게 되는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2) 연구 대상 선정 및 연구 수행 과정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활동 기간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2011년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활동 그룹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2006년에서 2007년, 2년간 여학생 운동 단체 간부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인맥을 통해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조직들의 존재 여부와 현황을 대략 파악하고 있었다. 그 중 연구 대상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서울 소재 대학으로 한정하였다. 다른 지역보다는 서울시, 전문대 보다는 4년제 대학이 더 특권적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지역 선정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간의 계층적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 이러한 학벌주의나 계급성을 고려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학 내 여성주의 모임의 존재 여부와 연구자의 접근성 문제였다. 서울에서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아직 활발하던 2000년대 초중반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여성주의 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¹³⁾ 이는 필자가 여학생 운동 단체에서 활동했던 시기에도 볼 수 있었던 현상으로 총여학생회가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경상남도과 전라북도에 각각 한, 두 군데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었고, 그나마 세워진 총여학생회도 비권 또는 반권에 가까웠다는 사실은 비서울 지역 대학에서 여성주의 운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준다. 비서울 지역은 진보적인 사상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성평등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에 놓여있다. 그나마 ‘총여학생회’라는 조직의 형태는 학생회 선거와 정책 자료집 등으로 특정 시기, 물리적

13) “여성주의 뿌리와 토대가 약하고 여성주의적 감수성이 메마른 (비서울)지역에서 사람들의 인식의 폭을 넓히고 여성 정책을 세우도록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지난한 일이다.” (대학 내 반성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 “활동가를 위한 도토리 충전”,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2004)

인 흔적들을 남기지만 여성주의 모임은 자기 역사를 남길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쉽게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비서울 지역 대학에서 여성주의 모임이 얼마나 등장하고, 사라졌는지는 더더욱 알기 어렵다.

이렇게 연구 대상 선정에 있어서 지역적, 계층적 다양성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지만 학교와 활동 그룹의 형태를 다양하게 선정함으로써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대학생활에서 대면하게 되는 젠더적 경험이 남녀공학과 여자대학이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 두 가지 형태의 대학을 모두 보았다. (가)와 (나) 학교는 남녀공학이고, (나)학교는 여자대학이다. 또한 여성주의 조직의 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총여학생회와 여성주의 모임을 모두 조사하였다. (가)학교는 총여학생회, (나), (다) 학교는 여성주의 모임으로 학생회와 동아리라는 조직의 성격 차이에 따라 활동가들의 활동 방식과 가입 경로, 페미니즘 수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된다.

(가) 학교와 (나) 학교 학생들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두 학교 여성주의 모임이 속해 있는 연합동아리에서 방학 기간 안에 진행하는 ‘페미니즘 캠프’에 연계하면서부터였다. 총여학생회와 여성주의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 3,4학년 학생들과는 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페미니즘 캠프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1,2학년들을 소개 받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여 (가) 학교 10명, (나) 학교 6명을 인터뷰 진행하였는데, 이 중 (가) 학교 2명은 인터뷰에서 연구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아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 학교 8명, (나) 학교 6명의 인터뷰 녹취록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한편 (다) 학교의 경우 사전에 어떠한 인맥도 없었으나 2011년도 학교 행사에서 우연히 T를 알게 되었다. 이후 학내 여성주의 운동과 관련하여 고민을 나누는 만남을 몇 차례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연구주제를 소개하게 되었다. 이후 연구참여자 T가 활동하고 있는 여성주의 모임의 다른 구성원들을 소개받아 정기 모임 자리에서 연구 참여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다) 학교는 모두 6명을 인터뷰 하였다.

세 학교 여성주의 활동 그룹 모두 2011년을 기준 그룹 구성원 전원을 인터뷰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인터뷰 내용에서 다른 내부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규정, 관계가 얹혀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진짜’ 여성주의라거나

‘덜’ 여성주의적이라는 표현 등을 쓰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의 개인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에 적합한 행동 양식과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성원간의 이견을 읽을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여성주의자로서의 개인적 정체성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이들의 언설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인터뷰의 주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페미니즘에 대한 수용 방식은 어떠하며, 그러한 태도를 갖게끔 한 맥락은 무엇인가?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주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페미니즘,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시각은 어떠하다고 보는가?

셋째, 페미니스트 낙인 문화 속에서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가?

넷째,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전략들이 탈정치화의 길을 노정하고 있는가?(운동의 쇠퇴) 아니면 생존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의 운동을 하고 있는가? (운동의 인큐베이팅, 모색기)

이를 통해 ‘단일한’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전제하지 않고도 페미니스트 정치 실천이 가능할지 모색해 보았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인터뷰에 비교적 흔쾌히 응해주었다. 특히 (가), (나) 학교 선배층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 라포 형성도 잘 되는 편이었다. 그러나 1,2학년의 경우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완전히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다) 학교 역시 필자와의 관계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충분히 라포형성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참여자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대학 사회의 분위기와 여성주의 관련 활동 양상은 연구자의 학부시절의 그것과 많이 달랐다. 연구자의 경험을 기준으로 연구참여자들의 활동을 재단하지 않기 위해 특정 이슈들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을 드러내거나 같이 토론하는 것은 자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활동하면서 갖게 되는 고민과 여성학 이론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드백

하고자 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도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들과의 관계에서 연구자-연구참여자 간의 경계는 모호해졌고, 선후배로의 편안한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과 연구자 사이의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때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본인은 ‘준전문가’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룹 모임에 참여할 때 간간히 페미니즘에 대해 모르는 것을 답변해주고, 해설해주는 역할이 요구되기도 했다. 총여학생회 정책 토론에서도 자신들이 토론하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나에게 확인하곤 했다. (다) 학교의 경우는 성폭력 사건 지원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가해자-피해자, 피해자-지원자, 지원자-가해자 사이의 갈등,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논쟁들에 대한 조언을 구하곤 했다.

이러한 관계는 인터뷰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당신이 볼 때) 제가 지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제가 아직 페미니즘에 대해 잘 모르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여성학 공부도 했고, 관련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으로 하는 연구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나에게서는 ‘준전문가’, 그들에게는 ‘아직 배우는 처지’라는 지위가 암묵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인터뷰 내내 이러한 권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페미니즘에 관해 정의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말해놓고도 확신하지 못할 때 그들의 언어에도 일리가 있음을 지지해주면서 그들에게도 ‘지식 생산자’로써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실제로 본 논문의 몇 가지 핵심적인 구상은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인터뷰이’나 ‘연구대상자’ 보다는 ‘연구참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전체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그에 대한 이론적 자원들을 다루었다. 대학 여성주의 운동의 현황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따로 선행연구 검토를 두지 않고 연구과제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을 다루었다. 또한 연구 대상과 연구방법 선정 이유에 대해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연구참여자와 이들이 속해 있는 각 대학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에 관한 소개를 한다.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이전 세대 대학 여성주의 운동과 어떤 역사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현재의 활동 그룹을 적절하게 ‘명명’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페미니즘’과 ‘여성주의’ 그리고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이라는 표현을 맥락에 따라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정체성과 활동 내용이 연구자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은 현재 대학에서 실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터뷰에 근거하여 쓰여 졌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 각 ‘개인’과 그들이 속해 있는 ‘그룹’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따로 독립적인 장을 두었다.

3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게 되는 계기를 살펴보고 페미니즘에 대한 각각의 이해와 수용 방식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활동 과정에서 이들은 우리 사회에 저변에 깔려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면하게 되는데 이 때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인적 정체성으로서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해가는지 보도록 한다.

4장에서는 집단 내에서의 갈등과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들을 본다. 다양하면서도 가변적인 ‘여성주의자’ 정체성은 곧바로 조직균열로 이어지지는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도록 한다. 그러면서 모한티의 ‘정치적 자매애’ 개념과 제릴리의 실천이론을 통해 ‘정체성’ 논의에서 정치적 문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요약하면서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전망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 한다.

제 2장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과 대학생 활동가

1. 대학 내 여성운동의 역사와 명명의 문제

한국 사회에서 대학 내 여성운동은 대략 10년을 주기로 대학 사회의 변화와 함께 운동의 형태와 내용이 바뀌었다. 그에 따라 대학 내 여성운동을 지칭하는 명칭도 변화를 겪었다. 그러므로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이 이전 세대 여성운동과 어떠한 역사적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보면서 활동의 양상과 활동가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본 논문 전반에 걸쳐 쓰이게 될 용어를 정리한다.

1) 대학 내 여성운동의 변화와 역사적 관계

대학 내 진보적인 성향의 여성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들을 보면 ‘여학생 운동’, ‘대학 내 여성운동’,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 등이 사용되어왔다. 이에 대한 구분을 보면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1시기는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로 당시 대학에 입학하는 여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남녀공학 대학에서 소수였던 여학생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던 때이다. 그러면서 대학 사회에서의 여성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김보명, 2004). 그러나 당시 대학 내 여성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의 한 주체로서 ‘여성’을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다. 운동의 목표는 여러 사회 모순들과 함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학생운동에 속하는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¹⁴⁾. 이 시기는 주로 ‘여학생 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

14) “조국이 갈라져 있고 지역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 분할되어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데, 이러한 용어로 불리우는 대학 내 여성운동은 2000년대까지도 부분적으로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⁵⁾

2시기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 해당하는 시기로 대학 여성주의자 집단이 새롭게 등장하던 때이다.¹⁶⁾ 이들 집단은 학생운동 안에서 여학생 운동이 갖는 낮은 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운동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대해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계급이나 통일과 같은 거대담론으로부터 후순위로 밀려나는 여성 관련 이슈들을 가시화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또한 당시 대학 여성주의자들은 학생운동이나 진보운동의 하위범주가 아닌 여성운동의 독자성이

조차도 이 땅에서는 차별과 억압의 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이 진정한 인간으로 설 수 있을때 남성 또한 진정한 인간으로 시계를 개조 변화시키는데 함께 복무해 갈 수 있습니다. 전여대협(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건준위(건설준비위원회)는 87년 민주화 열기속에서 이땅 여성들의 불평등한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여학우들로부터의 각성으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결성한 것입니다. 비록 청년학생 운동 속에서 부문운동으로 자리 잡아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어떠한 부문운동보다 인간 존엄성 자체를 차별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했기에 보다 큰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자료출처: [1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총회 자료집] 중 축사 부분 발췌, 강조는 필자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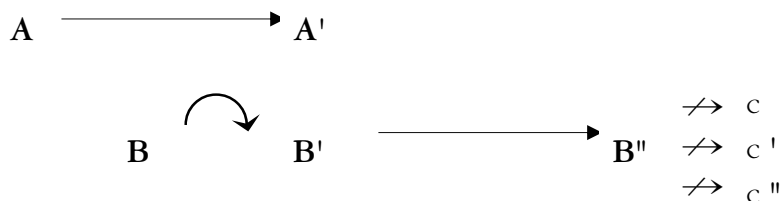
- 15) 1980년대 중반부터 학생운동 진영에서는 한국 사회 주요 모순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NL-PD로 분화되기 시작했는데(김보명, 2004), 이 때 NL 진영에 소속되어 있던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여대협’) 소속 학교들의 총여학생회 활동들을 주로 “여학생 운동”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소속집단이 어디냐에 따라 “OOO 운동”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는 전여대협 안에서도 지역간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운동 주체들은 기존 여학생 운동에 대한 문제의식과 독자적 여성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2000년대 초 다른 대학 내 여성주의 집단에 의해 ‘여학생 운동’으로 규정되었던 집단 안에서도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의식들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혼재된 논의들이 그룹 내부에서 발생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기 구분에 있어서 ‘여학생 운동’이라는 명칭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학 내 여성운동을 소속 집단을 중심으로 명명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적절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2000년대 이후의 대학 내 여성운동을 같은 방식으로 구별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6) 이 집단을 흔히 ‘영 페미니스트’라고도 한다. 그러나 당시 ‘반성폭력’을 운동의 대표적인 이슈로 공유하면서도 이러한 명명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운동 그룹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명명으로 당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여성주의 운동을 통칭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새로운 운동 세대로서 ‘여성주의 집단’의 등장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 ‘대학 여성주의 운동’이라고 하고, 그 운동 주체를 ‘대학 여성주의 집단’으로 명명한다.

필요함을 주장하면서(김보명, 2004) 80년대 이후 등장한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여학생운동의 한계에 비판적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시기적 구분을 했을 때 각 시기를 대표했던 운동 조직은 발생(emergence)과 성장(growth), 부흥(heyday), 쇠퇴(ebbing)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낸시 위티어는 페미니스트 조직을 위와 같은 주기로 분석하면서 각각 다른 시기에 해당하는 활동가들은 특정 역사적 시점에 특징적인 정치문화를 가지며, 각 세대 간의 긴장을 보여준다고 말한다(Whittier, 1995).

그러나 운동이 쇠퇴하거나 정체되는 것이 곧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운동 조직이 한 주기(cycle)가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림1>의 A와 B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운동 세력의 등장은 기존 운동 세력에 영향을 준다. 기존 운동 세력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어떤 의미에서 다른 정치적 세대의 운동을 일부 수용하고, 그로 인해 운동의 내용과 형식은 변형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외적으로 드러나는 ‘쇠퇴’는 그 다음 운동을 위한 인큐베이팅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러한 과정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 여성운동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80년대 등장한 여성운동이 1950~70년대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보수적” 여성운동으로 규정하면서 분리 또는 거리두기를 통해 스스로 “진보적” 여성운동으로 자임했던 것처럼(김숙이, 2007), ‘대학 여성주의 운동’도 기존 여성운동의 제도화 경향에 대한 비판과 여학생 운동의 한계를 딛고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림 1> 운동조직들간의 상호작용과 변화 흐름

문제는 C이다. A를 대학 내 여성운동의 1시기, B를 2시기라고 보았을 때, 현재를 대학 내 여성운동의 세 번째 시기라고 하기에는 그 역사적 관계가 앞의 모델

과 맞지 않다. 기존 세력, 즉 이전 시기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¹⁷⁾에 대한 비판으로 새롭게 등장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각 학교별로 분산되어 연대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고, 공통된 이슈나 정치적 투쟁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비운동권 총여학생회, 자생적인 여성주의 모임,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어 모인 학생회 간부들 모임이 한 학교에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데도 서로 교류가 전혀 없는 사례도 있다. C, C', C"에 해당하는 그룹들과 이전 시기 대학 여성주의 집단은 역사적 단절이 있었다. 이러한 단절은 집단의 경험의 전수되지 않음으로써 C에 해당하는 그룹들이 대학 내 여성운동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적인 예로 199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각 대학 성폭력 예방 내규와 같은 제도들에 대해 이들이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¹⁸⁾. 그나마 선배들과의 꾸준한 연계가 있었던 (가) 학교 총여학생회 구성원들도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들은 바가 거의 없었다. (가) 학교의 경우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 특히 교수성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조사위원회 구성 비율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무 사항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러한 조항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 현재 활동가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2000년대 중후반에 비권(또는 반권) 총여학생회가 등장했다 사라지면서 학칙의 내용과 의미가 전수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많은 학교들에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만든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주체들이 사라짐으로써 형식만 남고, 본래의 취지대로 해당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 학교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 학교 여성주의 모임의 경우

17) 김보명은 대학 여성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여성' 범주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즉 '여성'은 남성과 구별된 성적 범주이지만 이 범주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경험적 범주로서 실천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재개념화가 이전 여학생운동과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말한다(김보명, 2004). 그러나 현재의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들은 이전 시기와 뚜렷하게 대별되는 운동 노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룹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여성주의를 지향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하고 있지 않다.

18) 필자는 인터뷰 이후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가), (나), (다) 학교 연구참여자들 일부와 다른 2개 학교 여성주의 그룹 활동가들과 함께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을 위한 활동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에는 학교에 성폭력 상담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성폭력 예방 내규가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T가 필자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학교 내규를 검색하면서 이전에 활동했던 여성주의 모임에서 만든 학생회 반성폭력 내규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다.

(나) 학교 여성주의 모임의 경우는 다른 학교들과 연합동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모임 운영에서 나오는 어려움들을 네트워크 안에서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단 내부에서 진행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학습이나 실천을 해나가는데 있어 구성원 대부분이 본인들의 내용적 수준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들을 이야기 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들은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이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학내·외 네트워크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전 시기 여성주의자 집단들이 남긴 자료나 활동했던 흔적들을 스스로 수소문해서 찾지 않는 이상 여성주의 관련 활동들을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2)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 명명의 문제

앞서 보았듯이 현재 대학 내 여성운동과 관련해서 명확히 구분하여 부를 수 있는 단어는 없다.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페미니즘’과 ‘여성주의’가 섞여있지만 주로는 ‘여성주의’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쓰고 있는 “여성주의”라는 용어는 이전 시기 대학 여성주의자 집단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던 그 “여성주의”와 의미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후반 시기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대학가에서 대학 여성주의자 집단이 지향하는 여성운동의 원리와 방식을 의미한다. 전희경에 의하면 ‘여성주의’라는 것은 여성범주의 독자성에 대한 강조, 여성적 방식의 실천, 자율성과 실질적 평등에 대한 옹호, 위계와 이분법에 대한 거부, 일상의 정치에 대한 강조 등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김보명, 2004).

그러나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쓰는 ‘여성주

의'는 선배들이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물려받아 쓰고 있거나 여성학 책에서 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할 때는 '페미니즘'이든, '여성주의'든 연구참여자들이 선택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여성주의를 그대로 드러내고자 했다. 그래야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연구참여자 당사자의 생애 경험의 어떠한 맥락 속에서 구성된 것인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활동 조직에 대한 명명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좀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여성주의'로 통일하였다. 그룹 명칭에서 총여학생회는 그대로 '총여학생회'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총여학생회처럼 직접 선거로 학생 대표를 선출하는 기구 성격이 아닌 동아리, 소모임, 학회의 경우는 활동의 지향하는 바가 각기 다르고, 그에 따른 각 그룹의 명칭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¹⁹⁾ 모두 '여성주의 모임'으로 표기했다. 이 때 '여성주의 모임'에서의 '여성주의'는 용어에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여 썼다기보다는 이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²⁰⁾.

본 논문에서는 활동 그룹이나 활동가를 지칭할 때에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 내 여성운동', '대학 내 여성주의 그룹', '여성주의자 집단'이라고 하지 않고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표현했다. 왜냐하면 연구참여자들이 '여성주의'에 대해 분명한 경계를 가진 용어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 그룹이 페미니즘을 지향한다고 해도 자신의 정체성을 페미니즘과 동일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나 그들이 속한 집단을 지칭할 때 주로 '**여성주의 관련**'²¹⁾이라는 표현을 썼다. 또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새롭게 등장한 '여성주의자 집단'이 전개했던 운동과는 다른 개념이며, 이 용어 안에는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 '대학 내 여

19) (나) 학교의 경우 이론 학습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실천'도 병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다) 학교의 경우는 활동 방향이 좀 더 덜 합의된, 가장 느슨한 경계를 갖고 있다.

20) 한편 '여성주의'라는 용어 사용 자체에도 문제제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페미니즘, 여성주의 보다는 자신이 지향하는 바는 '성평등주의'에 가깝다고 표현하는 사례(연구참여자 G, I)도 있었다.

21) 필자 강조

성주의 관련 활동' 모두를 포괄하여 지칭할 때 사용하였다.

이렇게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기술해야 하는 부분들은 위와 같이 명명한 반면 연구자 입장에서 좀 더 넓은 맥락에서 포괄적인 용어로 써야 할 때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 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18세기 이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집합적 행동과 이론, 사상으로 정립된 것으로서의 페미니즘을 의미한다.

다양하고도 모호한 용어 사용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연구참여자들의 정체성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경계도 불분명했다. 여기서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뜻은 지향하는 '페미니즘'이 다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주의자'라고 규정하는지, 아닌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이다.

2. 대학 내 여성주의 그룹의 특징

1) (가) 학교 총여학생회

(가) 학교는 1980년대 후반에 처음 총여학생회가 세워져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 조직이 유지되어 왔던 곳이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단과대 여학생회도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대부분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성평등 위원회로 전환되었다. 현재는 단과대학에 따로 여학생 자치기구가 남아있지는 않다. 학내 여성운동의 오래된 역사를 가진 만큼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적 성평등 문화를 위한 제도나 여학생들을 위한 기반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 될 때에도 총여학생회가 단과대 여학생회와 여성위원회들과 함께 공청회를 거쳐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시 조사위원회를 만들 때 학생이 배제되지 않도록 교수, 교직원, 학생 비율이 고려될 것을 주장하고, 피해자중심주의 관점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학내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유지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해 왔

다. (가) 학교 총여학생회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학내 반성폭력 학칙 제·개정과 성폭력 사건 지원 활동을 주로 해 왔으며, “교수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와 같은 연대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교 여성주의자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생리공결제도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제도화 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급격한 학생운동의 침체와 동시에 뉴라이트 계열 학생 그룹이 등장하면서 (가) 학교 학생회 전반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생들은 기존 학생회를 학생 복지와는 무관한 정치활동에 집중하는 ‘운동권’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총학생회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총여학생회 역시 이러한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게다가 구성원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역량이 점차 축소되어 학내 안티페미니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 정비하는 정도로 남아있었다. 200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학내 운동권 VS 비운동권(반운동권) 학생으로 갈등 구도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학생 ‘복지’ 중심의 비정치적 총여학생회를 표방하는 그룹이 등장하였다. 당시 발생했던 교수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을 지원하고 있었던 페미니즘 지향 그룹이 이듬해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었다. 선거 공약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여학생 복지 측면에서 두 그룹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 해결과 여학생 취업지원 등 몇 가지 사안과 관련한 입장과 관점은 크게 달랐다.²²⁾ 예를 들어 교수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페미니즘 지향 그룹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반대쪽 입장에 서 있었던 학생들은 고소인이 허위 사실 유포로 교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논쟁을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기존 총여학생회=구태의연함’, ‘페미니즘 지향=운동권, 여성 편향적’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 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비운동권(반운동권) 총여학생회가 세워졌다. 그러나 비권(또는 반권) 학생회 사업의 부정과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떨어졌고, 이들은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차

22) 2006년도 (가) 학교 총여학생회 선거 공동정책 자료집 참고

그 세력이 축소되어갔다.

이후 최근 3년간 다시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총여학생회가 세워지고 있으나 이전 총여학생회 구성원들이 페미니즘을 지향하던 것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다. 현재 총여학생회 구성원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대중사업’으로 표현될 때 의견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다른 두 학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더 첨예하게 드러나는 편이며, 인간관계 문제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총여학생회’라는 조직의 특성상 학내 제도적 문제를 다루거나 여학생 복지에 초점을 둔 사업이 많다. 학생들 사이에서 총여학생회는 ‘그들만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크고, 페미니즘에 대한 일정 정도 반감이 있기 때문에 활동가들은 여학생 복지사업 등을 통해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3,4학년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생들과 페미니즘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성평등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1,2학년의 경우 인식의 변화 이전에 학생들과 총여학생회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하고 있다.

2) (나) 학교 여성주의 모임

(나) 학교는 여자대학교로 다른 여자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총학생회는 있어도 총여학생회가 있었던 역사는 없다. 왜 그러한지는 연구참여자 I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짐작해보건대 ‘여대니까 젠더에 근거한 차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기도 하고, 아예 그런 차별이 있는지조차 인식이 없기 때문인 것’²³⁾으로, 학내에서 젠더 갈등이나 억압이 첨예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대학원에 여성학 협동과정²⁴⁾이 있었으나 2000년대 중반에 폐과가 되었고, 현재에도 여성연구소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주의 모임’ 구성원들조차도 이런 곳이 학내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²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교양과목으로 여성학 강

23) 연구참여자 I 인터뷰 내용 중

24) 연구참여자 M 인터뷰 내용 중

의들이 개설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2011년 현재에는 개설된 여성학 강의가 전혀 없다. 수업시간에 교수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성’들이 ‘여성다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발언을 했다는 사례도 있었고²⁵⁾, 아예 그와 관련한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은 적은 편이다.

과거에도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활동 그룹이 (나) 학교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있는 ‘여성주의 모임’은 2011년 초에 연구참여자 I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으며, 다른 구성원들은 연구참여자 I의 권유나 홍보 전단지를 보고서 들어오게 되었다. 이 모임은 여성학 학습에서나 모임 운영 면에서 어떠한 정보나 지원도 없이 거의 무(無)에서 시작한 상태이다. (나) 학교 여성주의 모임은 (가) 학교 여성주의 모임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고, 대학 연합동아리²⁶⁾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세미나 커리큘럼이나 사업계획, 방학 중 활동 등은 이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있다기보다는 이 연합동아리 회의에 I가 참석하여 논의, 결정된 사항을 그룹 구성원들과 공유,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 학교에서 총여학생회보다 ‘여성주의 모임’ 구성원들이 좀 더 명확한 집단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나) 학교 여성주의 모임에서도 기본적으로 ‘여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집단적 정체성은 뚜렷한 편이다. 그러나 활동 그룹이 페미니즘을 지향한다고 해서 개별 구성원들이 반드시 자신을 페미니스트로서 정체화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학년들의 경우 학생 운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은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경로가 좀 더 다양하다. 자신의 성장체성이나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언어로서 스스로 페미니즘을 찾게 된 경우도 있고(I, J 사례), 여자대학교의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어 모임에 들어온 경우도 있다(N 사례). 그러나 I가 처음 이 여성주의 모임을 만들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여성주의 학습도 하지만 ‘실천’도 병행하는 동아리라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

25) 자료 복사, 커피 심부름과 같은 것을 여직원의 당연한 업무로 가르친다는 것. 연구참여자 K 인터뷰 내용 중

26) 현재 이 여성주의 연합동아리는 (가), (나) 학교 외에도 2~3학교가 함께 하고 있다.

에 구성원들 대부분이 학생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학교에서 이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페미니스트’라기보다는 ‘운동권’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의 학교에서 모임 구성원들의 학내 다른 인간관계 폭은 넓지 않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학내·외 정치 활동을 하면서 내부 결속력이 다져졌고, 다른 학교 학생운동 그룹들과의 교류도 활발한 편이다. 여성주의 모임이 만들어지던 초기에는 정기적으로 모임이 운영되지 못하였으나 점차 안정적인 모임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3) (다) 학교 여성주의 모임

(다) 학교는 1990년 대 초반에는 진보를 표방하는 총여학생회가 세워졌으나 투표를 저조 등 학생들의 참여가 낮아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²⁷⁾. 그러나 학내 여성운동의 기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98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몇몇 단과대와 학생회 내에 여성주의 모임이나 위원회가 있었으며, 이러한 그룹들이 여성운동의 내용적 생산과 실천을 주도해 왔다. 각 그룹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기 회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²⁸⁾ 그러나 2008년, 2009년 즈음 여성주의자 모임 구성원이 소위 ‘재생산’ 되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그룹들이 해소되었다.²⁹⁾ 지금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국한된 단기적 실천이기는 하지만 몇몇 단과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주의 모임은 학생운동사회의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운동 방식들에 문제의식을 갖고 조직을 나온 몇몇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2011년 초에 만들어졌다³⁰⁾. 다른 학교와 다른 독특한 점은 구성원들 일부가 서로 다른 학생운동조직³¹⁾에 속해 있었거나, 현재에도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7) (다) 학교 대학신문. 1991 참고

28) (다) 학교 대학신문. 2003 참고

29) 연구참여자 O의 인터뷰 내용 중

30) 연구참여자 P의 인터뷰 내용 중

31) 연구참여자 T에 의하면 이 조직들이 심지어 정치적 노선, 운동 방식과 문화의 차이로 서

고 ‘페미니즘’을 매개로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각자가 원하는 활동 내용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선 페미니즘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 구성원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가 서로 다르다.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여성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여성노동’ 사안에 좀 더 관심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는 ‘에코페미니즘’이나 ‘섹슈얼리티’와 같은 이슈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임에 대해 기대하는 바도 내부 구성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처음 여성주의 모임을 만들어지던 당시 모임 운영 방식에 뚜렷한 상을 갖고 출발했던 것은 아니다. 그 동안 각자 속해 있던 학생운동조직, 동아리 내 남성중심적인 문화로 상처받았던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치유 받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또 다른 공간에서는 할 수 없는 페미니즘 세미나를 원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대중 운동과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사람들과 페미니즘을 나누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전에 속해 있던 학생운동 조직에서 대중을 ‘조직·재생산’을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도구화 되는 것 같아 상처를 받았다는 구성원들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회원 모집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가), (나) 학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모임의 경계나 운영 방식이 가장 느슨한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재 멤버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룹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초기 이 모임을 만들었던 멤버 셋은 남아 있지 않고, 그 이후 들어온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은 단지 페미니즘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임이 유지되었지만 구성원 내부에서 발언권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가 하는 불균형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친밀한 정도가 서로 다르면서 생기는 균열들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1년간의 활동을 각자 소견서로 써서 공유하고, 집단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3. 연구참여자들의 특징

연구 참여자들은 2011년 현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로 대학에서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간략한 인적사항은 <표2>와 같다. 인적 사항에서 나이나 학년이 아닌 학년으로 표기한 것은 이들이 학내에서 ‘소수자’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개를 원치 않는 생애 사건이나 정체성이 연구참여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공개로 한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성소수자로 같은 과 학생들에 의해 ‘아웃팅’을 당했던 사례도 있고, 과거 성폭력 사건을 지원 한 것 때문에 현재까지도 공적인 활동에 나설 때마다 온, 오프라인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학생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연구대상 프로필을 작성했다. 1, 2학년의 경우는 대체로 학년과 활동 경력에 차이가 없지만 4학년의 경우 서로 나이가 다르고, 활동 배경과 경력이 다양하므로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서 차이의 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읽어야 한다.

연구참여자 20명 모두 포괄하는 설명은 아니지만 다수가 보이는 공통점들을 몇 가지 뽑아보면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들의 젠더적 경험을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가부장적인 집안 문화나 엄격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외모지상주의에 의한 차별,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성별 경험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대체로 ‘평범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 ‘여자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 받은 적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기도 하고,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게 된 이후에 젠더 억압적 경험을 하게 된 사례들도 있었다.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계기는 주로 선배나 친구의 권유로 하게 된 경우가 많아 젠더적 경험과 활동의 계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가족 내 성차별 경험으로 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명절 때 성별에 따

라 다르게 요구되는 역할들에 대한 것이었고, 그 외 가족 내 직접적인 차별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가족관계에서 부모의 특성을 보면 생계부양자 아버지, 주양육자로서의 어머니와 같은 성역할이 뚜렷한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자랐으며, 이러한 생애과정은 (나) 학교보다는 (가), (다) 학교 연구참여자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형제, 자매 관계에서 맏이인 경우 동생과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이를 통해 상당 기간 외동으로 자라면서 부모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태어나던 시기는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으로 여아 감별 낙태로 인한 성비 불균형이 가장 두드러지는 때이기도 하다.³²⁾ 여자 형제만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조부모에게서 간간히 남아를 선호하는 발언을 듣거나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인터뷰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성별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지지만을 받고 자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은 유교적인 가족이념과 개인주의적인 가족이념이 공존하고, 민주적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으로 통제되는 가족³³⁾ 안에서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32) 통계를 보면 2010년 전국 기준으로 만 15세~19세가 여성 100명당 남성 113.03, 만20세~24세 여성 100명당 남성 113.07로 연구참여자들이 속해 있는 연령대가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성비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통계표명: 총조사인구 총괄)

33) 한국인들의 가족 내부에는 세대차 등에 따른 여러 가지 가족 이념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유교적 가족이념, 도구주의 가족이념, 서정주의 가족이념, 개인주의 가족이념들이 있다. 이러한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은 가족이념의 차이로 가족성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보인다(장경섭, 2010).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징(2011년 기준)

번호	참여자	학교	학년	학내 활동 ³⁴⁾	젠더적 경험 (1. 현재 활동 이전 경험/ 2. 활동 이후 경험)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계기
1	A	가	4	여성주의모임 총여학생회 (2012현재 활동 중단)	2. 대학 내 성폭력, 총여학생회에서 성 폭력 사건 지원하다가 사이버 테러	신배의 권유로 여성주의 모임 활동. 이후 총여학생회 활동
2	B	가	4	여성주의모임 총여학생회 (2012현재 활동 중단)	1. 가정폭력 2. 성식장애	어느 순간 여성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책도 찾아보고, 여성학 강의를 수강. 이후 여성주의 모임을 알게 됨.
3	C	가	4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여성주의모임 (2012현재 활동 중단)	-	공동체 생활에 대한 욕구, 사람이 좋아서 학생활을 하 면서 총여학생회 신배들을 알게 됨.
4	D	가	2	여성주의모임 총여학생회	1.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	성정체성(동성애)에 대해 고민하다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주의를 알게 됨.
5	E	가	2	총여학생회 (2012현재 활동 중단)	1. 어린시절 큰 몸에 대한 남자아이들 의 놀림	신배(B) 권유로 페미니즘 캠프를 가게 되면서 처음 여성 주의를 접하게 됨.
6	F	가	2	여성주의모임 총여학생회	-	신배(B) 권유로 여성주의 모임 가입하면서 여성주의를 알게 됨
7	G	가	1	총여학생회 (2012현재 활동 중단)	-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학생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수습 집행부 모집한다고 해서 들어오게 된 곳이 총여학생회. 이런 것을 하는 곳인지 몰랐다.
8	H	가	1	총여학생회 (2012현재 활동 중단)	1. 가정폭력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학생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들어오게 된 곳이 총여학생회. 이런 것을 하는 곳 인지 몰랐다.

34) 2011년 전후 학내 활동 모두 포함. 활동 순서대로 기입함.

번호	참여자	학교	학년	학내 활동 ³⁵⁾	젠더적 경험 (1. 현재 활동 이전 경험/ 2. 활동 이후 경험)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계기
9	I	나	4	단과대 학생회 여성주의모임	1. 강사에 의한 성추행 2. 과 내 아웃팅	자신의 성정체성(양성애)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여성주의를 접하게 됨.
10	J	나	3	여성주의모임	1. 집안의 가부장적인 분위기	이전부터 개인적인 관심이 있었고, 학교에 이런 모임이 없었는데 어느 날 여성주의 모임 홍보지를 발견하여 들어오게 됨.
11	K	나	1	중앙동아리 여성주의모임	-	선배(())의 권유로 여성주의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처음에는 여성주의가 뭔지 몰랐음.
12	L	나	1	중앙동아리 여성주의모임	-	선배(())의 권유로 여성주의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처음에는 여성주의가 뭔지 몰랐음.
13	M	나	1	중앙동아리 여성주의모임	-	선배(())와 친구(K)의 권유로 여성주의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음.
14	N	나	2	여성주의모임	-	개인회가 심한 여자대학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재밌게 대학생활을 하고 싶어 동아리를 듣게 되었는데, 여성주의를 지향하는 곳이라는 물렸음.

35) 2011년 전후 학내 활동 모두 포함. 활동 순서대로 기입함.

번호	참여자	학교	학년	학내 활동 ³⁶⁾	전더적 경험 (1. 현재 활동 이전 경험/ 2. 활동 이후 경험)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계기
15	O	다	4	단과대에서 여성주의 관련 활동 여성주의모임	1. 집안 어른들의 남아선호사상 / 권위적인 아버지 2. 활동 이후 경험	대학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됨. 그 중 여성주의자인 선배와 만나 책모임 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접하게 됨.
16	P	다	4	과 대표 등 학생회 활동 여성주의모임 (2012현재 활동 중단)	1. 아버지의 부제로 인해 더욱 요구되는 남성성(부장, 장남, 강한 체력 등) 2. 남성중심적인 동아리 문화 / 남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여성성	학생회 선배들을 통해 여성주의를 접하게 됨.
17	Q	다	2	중앙동아리 여성주의모임	1. 남성중심적인 동아리 문화 / 남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여성성 2. 대학 내 성폭력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 후 여성주의를 접하게 됨.
18	R	다	2	단대 학생회, 여성주의모임	1, 2. 외모로 인한 다른 대우, 다이어트 2. 대학 내 성폭력	처음에 인권 운동에 관심을 갖다가 그 과정에서 '인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여성주의적 시각을 접하게 됨.
19	S	다	3	여성주의모임	1. 외모 기꾸기에 대한 집착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때 여성주의를 처음 접하기는 했지만 그 때는 오히려 맑스주의에 더 끌렸음. 한편 외모 기꾸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성주의로 이것에 대해 해석하고자 함.
20	T	다	2	반 학생회, 여성주의모임	1. 학생회의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갈등/ 남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여성성 2. 성폭력 사건 지원	대학에 들어와 학술 동아리에서 여성주의를 처음 접하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 남성중심적인 학생운동 사회에서의 여러 경험들을 재해석하게 됨.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36) 2011년 전후 학내 활동 모두 포함. 활동 순서대로 기입함.

제 3장 페미니즘과 ‘여성주의자’ 정체성

3장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연구참여자들이 페미니즘에 관한 개인적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살펴본다. 연구참여자들은 특정한 내용을 갖춘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면서 활동을 시작했다기보다는 페미니즘과의 우연한 만남 속에서 개인의 경험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페미니즘에 관한 이들의 다양한 이해는 발언, 행동, 사업 등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때 내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엇이 페미니즘인가’를 생활 양식으로서 습득하게 된다.

이 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수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페미니스트 정치 실천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전제해야 하는지를 고찰해본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페미니즘과 접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 구조화 되어 있는 젠더 문제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대중들 사이에 퍼져있는 안티페미니즘 통념에 부딪히게 되면서 대면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위에서 분류한 전략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위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 ‘여성주의자’ 정체성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살펴보도록 한다.

1. 페미니즘과의 만남과 이해방식

1) 페미니즘과 만나게 되는 계기

연구참여자들이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계기를 보면 대부분 개인적 관심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찾았다기보다는 우연한 인간관계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이 페미니즘을 접하게 된 계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계기는 우연에 의한 것으로 주로 대학 입학 후 ‘선배의 권유’로 총여학생회 활동을 시작하거나 여성주의 모임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이다. 이들 중에는 바로 페미니즘 활동 그룹에 참여하게 된 경우도 있고, 학생운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화된 여성문제를 인식하게 된 경우도 있다. 이들은 페미니즘을 목적의식적으로 찾았다기보다는 우연한 접촉을 통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전에 젠더나 사회구조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들은 A, C, E, F, H, K, L, M, N, O, P, Q, R, S, T이다.

- A: 집회라던가 그런 것도 처음 나가보게 되고, 사회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음- 그 때 그 무렵에 선배가 여성주의 소모임 얘기를 하셨어요. 그 때는 단과대에 성평등위원회도 있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총여학생회는 잘 몰랐는데, 당장 가까이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언니가 ‘여성주의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그게 처음에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 E: B언니는 봉사동아리 왔을 때 봤었고, 1학년 때 같이 듣는 과목 있 어가지구 친해지고.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페캠(페미니즘 캠프) 같 이 가자고, 그 해 겨울에 페캠 같이 가서 총여하자고 했어요. (중략) 그 때는 저 잘 몰랐거든요? 그 전까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뭔지 약간 알아가 보는 의도로 갔었던 거 같
아요.

- O: 제가 속한 단대나 속한 반 문화가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단
적이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입학했을 때) 새로배움터? 이런 데서
도 선배들이 존댓말 써주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술 문화(평등한
문화)나 (반성폭력)내규³⁷⁾나 이런 것들도 뭐랄까 충격적이었고, 신선
했던 것 같고. 또 저희 반에서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여성주의
자 언니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어쩌다보니 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 분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방³⁸⁾이라
던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좋았고- 그리고 그 분이랑 여성주의 모
임을 한다던가
- P: 처음- 대학 와서 반성폭력 오티 같은 것도 하고, 교양도 하고- (중
략) 그 때 당시에도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가지구. 학구열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학구열이라기보단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있고,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이랑
같은 학회 들어가가지구, 선배들이랑도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했
고. (중략) 그래서 거기 선배들도 이제 여성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 학습을 했던 선배들이고 해서, 반에서도 교양도 같은 것도 많이
했고. 저는 처음에 이게 뭔 말일까 하면서 사실 세미나를 했는데
- R: 저는 우회적으로 인권을 통해서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었어요. 고3
끝날 즈음 막 대학 입학하고 그럴 때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 입학하기
전에 인권 단체에 가입하기도 하고, 어. 나는 인권 운동 열심히 하
자! 인권 관련한 서적을 보긴 했는데, 그런 서적에서 페미니즘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게 되었어
요.

37) 대학 입학 후 선배들과 신입생들이 2박 3일 내지 3박 4일 가는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간
동안 적용되는 반성폭력 내규

38) 학교 내에 있는 여학생 휴게실이나 여학생들만의 공간

- H: 과 오빠한테 '저 쯤 총여학생회에 관심이 있다.' 근데 그거를 부과장 오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 또 C 언니에게 얘기해서 연락을 받게 되고, 되게 우연찮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습집행부를) 모집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중요한 것은 페미니즘을 접하기 전에 젠더 문제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고 해서 젠더 억압적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페미니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시각을 얻게 되었고, 사회통념상 당연시 되었던 것에 의문을 갖게 되면서 과거 경험을 새롭게 재해석 하게 된다.

- T: 그래서 여성주의를 되게- 1학년 1학기? 이때 쯤에는 그냥 책에서 배운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중략) 엄청 해방적인 공간(학술동아리)에서 이론으로써만 여성주의를 배우면서 과거 경험들을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점점 더- 1학년 1학기 말이나 1학년 2학기 말 학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 여성주의 언어를 가지고 현재의 경험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책에서 봤던 게 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 E: 페미니즘 하고 이런 게 정말로 '내가 어릴 때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그래야지 하는 거. 큰 경험이 있어야지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중략) 그래가지고 (내 문제로)잘 와 닿지 못하다가 거울에 (페미니즘 캠프를 다시) 갔을 때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큰 계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것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아. 내가 아직까지 성차별적인 것이 경험해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구나 하면서 가까워진 게 있었죠.(중략) 남자애들이랑 얘기하고 어색하고 그런 것이 외모로 보는 게 차별적인 게 그런 게 있었던 거구나. 내가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게 있었던 거구나.

두 번째 경우는 과거 젠더 억압적 경험을 했거나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페미니즘을 스스로 찾게 된 사례이다. 이들은 좀 더 일찍부터 적극

적으로 여성학 책을 찾아본다거나 성소수자 모임, 여성단체를 찾았으며, B, D, I, J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전에는 어떤 곳에서도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현재 활동 조직을 만나게 되면서 비난받지 않고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들은 페미니즘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설명할 ‘언어’를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 B: 여성주의 이런 단어를 어디서 주어 듣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느 정도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여성학 과목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1학년 때 연애가 되게 의존적이었어요. (중략) 과 친구들이랑 안 놀고 그 남자친구가 나의 인생의 전부였고. 제가 생각했던 게(기억나는 게) 책 하나를 읽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연애에 있어서 여성인 내가 이 친구한테 되게 많이 의존하고 있고 내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으려면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야겠다.
- D: (동성)친구를 좋아하게 되고 사귀면서 우선 고3 2학기 때부터 관심사가 아주 달라졌죠. (중략)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중략)‘언니네트워크’나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그런 거를 다 그 때 알게 되었어요.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뭘까? 뭘까? 하면서

그러나 스스로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찾고, 수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여성주의자’라고 정체화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페미니즘은 자신에게 유용한 언어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이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1순위가 반드시 ‘페미니즘’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학생회나 여성주의 모임이 어떤 사상을 지향하는지 알지 못한 채 풍부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게 된 경우가 있다. 연구참여자 G, N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학생회와 여성주의 모임을 시작했지만, 페미니스트 의식에 의해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아니며 첫 번째 그룹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활동을 하면서 차츰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 G: 저는 개강신문 보고, (중략) 그래서 저건 뭐지? 근데 총학생회는 수습집행부를 모집 안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학생회 활동 해보고 싶으니까 총여 들어가보자. 왜냐면 총학생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모집한다는 게.
- 연구자: 그러면 총여학생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학생회를 하고 싶었던 것이구나.
- G: 그것도 그렇고 그 개강신문 보면서 여학우들을 위한 곳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생리공결제도도 거기에 써 있었고 그러니까. 흥미로운 곳이네. (중략)
- 연구자: 그럼 학생회 활동에서 뭘 해보고 싶었어? 이런저런 경험?
- G: 말 그대로 학우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연구참여자들이 지금의 활동 그룹에 들어오게 된 계기도 다양하지만 페미니즘을 접하고 난 이후의 반응도 개인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정도가 같은 그룹 내에서도 구성원들마다 차이가 있다.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대체로 사회 구조를 인식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자신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유용한 언어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상이 더 불편해져서 페미니즘을 외면하고자 하는 사례도 있었다.

2) 젠더 억압 경험과 페미니즘 수용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중 하나는 ‘여성’들이 직접적인 성차별이나 성폭력과 같은 경험 때문에 좀 더 ‘여성’ 문제에 민감하게 되고, 그러한 ‘여성’들이 페미니스트가 되곤 한다는 것이다. 젊은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여성으로서 성차별이나 성폭력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있거나 성소수자 정체성이 그녀들을 페미니스트로 만든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Buschman & Lenart, 1996). 페미니즘이라

고 하면 여성 억압을 전제하고 있고, 그래서 특정 여성들이 젠더 억압적 경험으로 페미니스트가 되었다는 공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렌제티(Renzetti)에 따르면 젠더 억압 경험이 젊은 여성들의 태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태도로 발전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Buschman & Lenart, 1996).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을 보았을 때도 젠더 억압적 경험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데 더 적극적이게끔 하는 요인은 아니었다. 위 명제 ‘젠더 억압 경험은 여성을 페미니스트로 만든다’가 참이라면 그 대우 명제인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면 부정적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도 참이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직접 성차별적 경험이 없더라도 페미니즘을 지지하게 됨으로써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사회구조적인 젠더 문제로 재해석하게 되거나, 혹은 과거에 젠더 억압을 경험했더라도 기억 속에 묻어 두었던 일들을 상기하여 성차별적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I: 억압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받았더라고요. (중략) 제가 몰랐는데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했던건데. 유치원 다닐 때 수영 수업이 있었어요. 물 밖으로 빨리 나가지 않는 여자애들은 (선생님이) 거기를(생식기를) 만졌어요. (중략) 마주할 수 있는 자신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어찌 할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더럽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제 자신이. (그런데 지금은)난 더럽지 않다. 마주할 수 있게 되었죠.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었던 연구참여자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아도 젠더 억압적 경험과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의 연관성은 없어보인다.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던 B는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만, H는 그렇지 않다. 그러한 젠더 억압적 경험들이 페미니즘에서 이야기 하는 것들을 당사자들이 자신의 문제로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처음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찾게 된 계기에서 가정폭력 경험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었다. B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 시기부터 젠더관계에 대한 여러 사회 현상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생물학적 성’이나 젠더 억압적 경험이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를 확고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유일한 남학생이었던 P의 경우 자신에게 요구되는 남성성이나 또래 문화에 불편함을 느꼈고, 사람들과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기 위해 페미니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남성성이 불일치할 때, 페미니즘을 통해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는 듯 하다.

- P: 사실 지금은 여성주의에서 여성에 대한 것보다는 남성성에 대한 것에 더 관심이 더 많아졌거든요? 군대 문제라든지 남성성이라든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엄청 관심이 많아졌어요. 남휴(남학생 휴게실)에 대해서도 관심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으려면 정리된 언어랄까? 그런 게 페미니즘이 될 수 있겠고. (중략) 그런데 지금은 색 안경 중에서도 좀 좋은 색안경. 잘 보이는 거-.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딱딱 보이는 그런 색안경. 아, 나는 권위적인 선배들이 싫었는데, 그것을 딱 한 마디로 얘기할 때 어떻게 힘을 빌릴 수 있을까? 그 때 힘이 되어주었던 것이 페미니즘이 되었었고. 그래서 나의 실제 생활에서 저한테 많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남자니까 이래야 된다, 가장이니까 이래야 된다.’는 것도 되게 그때부터도 싫었거든요? 물론 남자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P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가장의 부재’로 인해 일찍부터 대리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요받으며 살아왔다. 어린 시절에는 남성들만의 문화를 동경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남자’라는 이유로 요구되어지는 성역할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페미니즘을 좀 더 적극적

으로 수용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페미니즘 수용의 관계를 보면 집단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는 페미니스트 운동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우연히 접하게 된 페미니즘을 개인적인 경험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사회·제도적 변화를 이끄는 정치적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개인의 문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정치적 목표가 희석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들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다.

그러나 프리만의 주장에 따르면 운동의 방향과 그 결과는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이데올로기로 결정되기보다는 조직 구조에 의해 달라진다(Freeman, 1975). 개인지향적이고, 느슨한 조직구조가 가시화된 운동의 성과들을 바로 가져오지는 못하더라도 개인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소규모 네트워크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면 안티페미니즘과 같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면서 급진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페미니즘 수용 방식을 두고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을 평가하기보다는 이러한 양상이 이후 페미니스트 실천 가능성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연구참여자들이 이해하는 페미니즘

연구참여자들이 “페미니즘(또는 여성주의)”라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페미니즘 이론이나 실천의 대상이 ‘여성’ 범주에 한정된 것에서부터 전 인류애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연구자: 그 ‘너무 페미니즘적’인 게 뭘까?
- B: 그게 진짜 궁금한 건데요. 수업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략) 어떤 여학생이 (젠더 관계를)구조적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남자가 본능적으로’ 라는 말을 써요. ‘남자가 본능적으로 사회나 기업에 더 헌신하려고 하고, 여자는 가정에 헌신적인’ 게 있지 않냐. (중

략) ‘그래. 차별은 있다.’라고 인식은 했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페미니즘적이지 않는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거 그런 거 없는데... ‘완벽한’ 페미니즘을 얘기하면 이건 극단적인 거고, 가부장제랑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합리적인 페미니즘’. 그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B는 기본적으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그 구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페미니즘적인” 관점이 아닌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페미니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A도 B와 비슷하게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가) 학교 총여학생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래도 좀 더 ‘포괄적인 여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A라고 말해진다. 구성원들이 보기에 A는 ‘여성’뿐만 아니라 젠더와 교차하는 계급, 환경, 성소수자 등 다양한 정체성들에 관한 이슈들까지 페미니즘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B와 A가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A와 B의 차이는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방식과 그 정도의 문제인데, 총여학생회 구성원들에 의하면 B가 주장하는 페미니즘 내용들이 ‘여성’에 국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좀 더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B는 ‘강경한’ 페미니스트라고 규정된다.

(다) 학교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여성’ 범주에 한정 짓는 것으로 페미니즘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성별 권력 관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명제에는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O: 나는 여성이고, 피해자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올바른에 대한 고민을 결국엔 놓게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성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줘야 하고 아니면, (중략) 비판을 할 때 저 사람은 여성주의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꼭 꺾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여성주의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건 여성주의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O는 피해자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페미니즘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페미니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종종 자신이 지향하는 페미니즘이 ‘여성에 편향된’ 페미니즘보다는 좀 더 ‘폭 넓은’ 페미니즘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페미니즘이 기본적으로 억압적인 관계를 해석하고, 부당한 현실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억압’들(예를 들어 성소수자, 장애인, 자연에 대한 인간의 폭력 등)에 관한 문제들도 페미니즘적 언어로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본다.

- D: 많이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관심은 꾸준히. 성소수자 공부를 할 때 언어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페미니즘을 찾아) 봤던 것 같아요.
- 연구자: 언어가 겹친다?
- D: 페미니즘에서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를 다루잖아요. 성소수자에게 있어서는 이성애와 동성애 사이의 권력관계가 있고, 이것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니깐 단어만 바꾸면 똑같은 원리
- I: 전 인류애적 사랑? (중략) 차별없고, 평등한 세계로 가는데 필요한 (중략) 페미니스트이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페미니스트가 아니야’라고 할 거 같아요. 실제로 억압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은 여성이어서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그것을 뛰어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만’의 억압 철폐를 이야기 한다면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페미니즘의 경계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유사해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 G: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게 생각나요. 이걸 되게 저 혼자 고민하다가 A 언니랑 얘기했었나? C 언니한테 따졌던 거. 왜 하필 ‘여성주의’죠?

왜 '여성'이지? 차라리 '성평등주의'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성주의 하면은 일반 사람들, 학우들이 봤을 때 '여성우월주의 아냐?' 남자들은 그러고, '여성들만의 것 아니야?' 이랬는데? '성평등주의' 하면 평등이라는 단어가 플러스 되는 이미지이잖아요.

G는 여성주의라고 하면 '여성'에게만 편향되어 보이는 문제점이 있으며, 실제 페미니즘에서 이야기 하는 가치들을 들어보면 '성평등주의'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G는 '여성주의'라는 명칭이 '여성'에 좀 더 편향적일 것이라는 뉘앙스가 느껴진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타인들의 공격에 방어하려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G가 페미니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G가 보기에 페미니즘에서 말하려는 가치들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권리로써의 '평등'의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상이한 만큼 자신이 속한 활동 그룹에 거는 기대와 활동 지향도 다양하였다. 그러한 기대를 몇 가지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페미니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주변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의 젠더적 경험을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게, 지지받으면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② 사회 통념이 요구하는 성역할, 성정체성이 자신의 그것과 불일치하면서 발생하는 고민, 자신의 젠더적 경험이 무엇 때문인지 해석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
- ③ 젠더 억압적 경험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 ④ 타인과의 관계 맺기에서 좋은 가이드 역할로서의 페미니즘
- ⑤ 개인들로 파편화된 대학생활에서 공동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그러므로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는 서로 경합하게 된다. 즉,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은 그룹 내 구성원들이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을 이루고, 페미니스트 운동의 단일한 목표를 설정, 실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개인들이 각자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수용한 정도

는 발언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때 다른 내부 구성원들의 반응을 통해 무엇이 ‘페미니즘’이고, 어떻게 해야 페미니스트로서 ‘적절한’ 행동인지를 파악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생기는 내부 역동은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 안티페미니즘 통념에 대처하는 다양한 전략

연구참여자들은 종종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대중들의 외면을 경험하게 된다.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페미니즘 이슈들을 만들기보다는 방어에 집중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페미니즘 관련 활동을 함으로써 받게 되는 ‘낙인’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한 페미니즘과는 다른 내용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페미니즘을 표현한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연구참여자들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에 따라 그것은 대처 전략이 되기도 하고, 지향하는 이념이 되기도 한다.

1) 전략1: 대면하는 장면에 따라 정체성 드러내기-감추기

활동 그룹 외부 사람들에게 ‘페미니스트’는 사소한 것도 그냥 못 넘기고, 늘 항상 지적하는 피곤한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너무 페미니즘적’으로 보이면 도리어 반발을 사거나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이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기도 한다.

- B: 상대방이 (여성주의를)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그렇다고 판단되면 문제제기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너무 모욕적이지 않거나 하면. 아니면 그냥 일반인처럼 굴 때도 있어요. 나에 대한 욕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득이 될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많은 경우 “입장 없음”으로 본인을 정체화 하기보다는 최대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페미니즘을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이때 사용하는 전략은 페미니즘이 젠더 억압을 다룸으로서 남성 대 여성 대결구도로 비추어지거나 여성우월주의로 해석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한 것들이다. 이것은 같은 활동 그룹 내부 구성원들끼리 사용하는 용어를 그룹 밖에서는 유연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D: 사람들에게 얘기할 땐 “성평등”이라고 얘기해요. 번역을 해요. 여성주의를 얘기하고 싶으면 농활 때나 그럴 때 “그건 폭력적이야.” 라고 하지 않고, 성평등이라던가, 비폭력이라던가. 둥글게 둥글게. 다양성? 좀 더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 좀 더 거부감이 덜 들만한 언어로...

C는 주변 사람들에게 페미니즘이 남성에게 공격적인 것이 아님을 어필하고자 노력한다.

- C: (계속 이 활동을 하다보면) 여성주의적인 관점 부분에서는 B 언니랑 같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요. 언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단언하시죠. 제가 신입생 환영회 같은데 가서 어떤 문제적인 언행들을 보았을 때, 저는 웃어넘기는데 B 언니는 ‘(이곳 문화는) 문제가 있네요. 저는 가겠습니다.’ 분위기 싸-. 저는 제가 한 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해요. 약간 장난식으로 (부드러운 어조로 지적하면서) 분위기를 최대한 깨지 않는 식으로...

한편 총여학생회의 경우 조직 형태의 특성상 페미니즘에 대해 학생들과 내용을 공유할 때 ‘대중사업’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데, A는 총여학생회 사업에서 사람들이 주로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다루고자 했다고 말한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 없는 사업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 내용은 ‘페미니즘적’ 관점을 담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 A: 가장 크게는 여성주의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접근하기 어려울 거다, 편견이 강할 거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학생들이 관심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연애” 여성주의를 담은 연애를 해 볼 수 없을까. 또 하나는 연애를 갖고도 (이성애 연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성소수자, 동성애라던가, 피임이라던가 이런-사람들이 (‘성’에 대해 일상적으로 쉽게)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해 보자.

E는 자신이 페미니즘을 수용하게 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너무 이론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고,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개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을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한다.

- E: 선거 정책 토론할 때도 얘기했는데 페미니즘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그 것처럼 이론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마음이 더 울리지 않을까. 제가 아무리 그 전에 (여성주의) 강의를 듣고 그래도 못 느꼈던 것처럼.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페미니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정체성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감추는 전략은 언어와 행동, 사업 내용에 반영되는 것을 넘어서서 대면하는 상대에 따라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는 등 세밀한 부분으로까지 확장된다.

- T: 저는 되게 많은 고민을 한 거죠. ‘웃이랑 화장을 어떻게 할까?’ 생각 하면서. (나를 성적대상화 하는)그런 말을 했던 새내기랑 밥을 먹기로 약속을 한 날이었고, 오후에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 가야 했고, 저녁에는 여자후배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각각 추구하고자 한 이미지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애 만날 때는 나한테 감

히 기어오르지 못하게 엄청 눈꼬리 올리고 썸 화장하고 가고 싶었고, 여자애를 만날 때는 그냥 화장 안 하고 안경 끼고 편안한 언니처럼 가고 싶었는데. 근데 그 날 저의 하루 일정 중 제일 중요한 일정이 그 성폭력 사건 대책위였는데- (중략) 대책위에서 (페미니즘) 자체에 어떤 적개심을 가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택했던게 정말 착해 보이는 옷차림과 착해 보이는 화장이었던거죠. (중략) 제가 좀 '공격적인 인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중략)그러니까 내가 화장이나 옷차림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저 남성들의 특정한 감정을 유발해서 나도 덜 상처받고... 또 나의 어떤 이런 꾸미기 노동과 그 꾸미기 노동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저 남성들의 감정들을 자원으로 삼아서 (쏟아내하면서) 대책위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구나.

2) 전략2: 페미니즘 경계를 확장하기

두 번째 전략은 '페미니즘의 경계를 확장하기'이다. 이 전략에는 페미니즘이 적용되는 대상을 다양한 계층으로 설정하는 것, 그리고 페미니즘에서 다루는 이슈의 폭을 넓게 확장하는 것.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

연구참여자 T는 페미니즘이 남녀 대립구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며 '(생물학적)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win-win' 하는 좋은 것임을 강조한다.

- T: '여성주의는 여자들이랑 남자들이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니?' 이렇게 말을 해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지 않나? 그런 전략을 언니들도, 그리고 저도 취했던 것 같은데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이 지향하는 페미니즘은 A와 같은 포괄적이고, 확장된 개념의 페미니즘이라고 말한다. 같은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F도 페미니즘이 다루는 이슈를 모든 차별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C: A 언니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B 언니를 페미니즘에 있어서 100으로 보면 A 언니는 이걸 초월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의미의 페미니스트가 아닐까. B 언니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포커스 자체가 “여성”에만 딱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A언니 같은 경우는 에코페미니즘부터 성소수자까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F: 여성주의는 모든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더 확대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차별 정의를 내리면 그 차별이 뭔지 먼저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류의 다양한 차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잖아요. 성적 소수자, 장애인... 그 쪽으로 쉽게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성주의자가 모든 차별을 없앨 수 있다.

이때 각자가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여성’에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모든 사회적 소수자를 포괄하고 있는지에 따라 ‘강경한(극단적인)’ 페미니스트와 ‘포용적인’ 페미니스트로 규정되기도 하는데, (가) 학교 총여학생회 내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후자의 입장을 좀 더 지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페미니즘의 경계를 확장하는 전략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하나는 ‘여성’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여타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가시화시키고, 페미니즘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티페미니즘 통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될 때에는 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특정 성에게 편중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효과를 주며, 대중들에게 본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음을 어필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진다. G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한 총여학생회 사업 내용을 보면 이러한 전략을 엿볼 수 있다.

- G: 저희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함이나 다채로움이라고 해서 비빔밥 사업도 하고~ 다양성 존중. 저희가 harmony 그걸 걸었거든요. 그래서 “harmony hope”이라고 해서 주점도 열고? 그리고 강연도 하고. 초청 강연. 홍석천 왔어요. 그리고 또 뭐였지? 사진 찍는 거. 이렇게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있어요. 판이- (중략) 그걸 들고 찍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양성’이 뭔지 폴라로이드로 찍어서 그 아래 한 줄로 써서 나무가 있는데 레인보우 트리라고 붙여주시면 추천해서 상품주고 그런 거

G는 총여학생회 사업 속에서 ‘개인’들의 다양함에 대한 존중은 이야기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홍석천 씨 강연을 기획한 것으로 보아 성소수자의 인권문제도 다루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학교 총여학생회 다른 구성원들의 기획 의도에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한 면도 있었겠지만 G의 인터뷰 내용 중에는 그러한 기획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 않았다. 왜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는지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보다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임을 부각시키고, 학생들이 쉽게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그러므로 페미니즘의 경계를 확장한다는 것은 여성우월주의나 여성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곤 한다.

3) 전략3: 심리적 갈등과 문제를 회피하기

흔히 사람들이 페미니즘과 접하게 되면서 사회구조적인 젠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면 경험하는 것이 내적 갈등이다. G는 ‘나는 여성주의자가 아니에요.’라고 명확히 자신을 정체화 하지만 활동 그룹의 성격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총여학생회 활동 이후 성별 관계를 바라보게 된 시선이 좀 더 민감해졌음을 느끼지만 문제의식만 있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 갖게 되는 자책감이 이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 연구자: 만약 그 자리에서 본인이 대안을 갖고 있었다면 문제제기 할 수 있었을까?
- G: 네. 대안이 있었으면. 애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럼 다른거 하자.’ 제가 말한 거 하자 할 수 있을 대안이 있었다면 저는

문제제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문제제기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대해 언니들이 말하려고 하면 ‘아- 저 안 들을래요.’ 그랬거든요. 아. (총여학생회)선거하기 전에 모임 있었어요. 여성주의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싫다고 그랬어요. A언니가 ‘왜?’ 그래서 좀 알아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 그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랬더니 A언니가 굳이 자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고- (중략)

- 연구자: 그래서 위로받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
- G: 그 순간 뿐이었죠.
- 연구자: 왜?(웃음)
- G: 그래도 잘못된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G는 어떤 것이 페미니즘적인 입장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으나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게 되는 상황마다 ‘실천’해야 한다는 압박을 준다고 말한다.

F 또한 자신이 속한 과 내 이성애 중심적인 놀이 문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동화되기도 한다. 여성주의에 대해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를 느끼며, 자신을 여성주의자로서 정체화하기에는 아직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 F: 저희 과가 되게 마초적이에요. 러브 샷 투³⁹⁾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러브 샷)쓰리 하면 (남자)무릎에 (여자를)앉히고... (그런 문화를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거예요. 모두가 재밌어 하고 (원치 않는 스킨십을 강요하는 것) 저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저도 어느 순간 물드는 거예요. 힘든 거 같아요. 여성주의를 공부한다면 저도 물들어버리는. 제 속에 이미 그런 게 내면화 되어 있으니까. (가부장적인 습관들을)빼고 (여성주의를) 넣어야 하는데, 넣기만 하는 거 같아서. 혼란스러워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걸 남성주의적인 시각이 아닐까? 내 스스로 위축되고.

39) 서로 목을 껴안고 술을 마시는 행위

또 다른 내적 갈등은 나름대로 본인이 이해하고, 수용한 ‘여성주의’를 그룹 외부에서 발화했을 때 돌아오는 부정적 반응들이다.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모르는 사람보다는 지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활동 그룹 외 타인들과의 관계의 지속성, 또는 향후 활동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G: 총여라는 단어는 뭔가 (잠시 침묵) 예를 들면 그런 거 같아요. 어-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건데요. (사회적)소수자들?이- 소수자들이 개개인으로 있을 때는 정-말 나약해 보이고, 정말 하찮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러지만, 모이면 위협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학우들은 그런거 같아요. 제가 아는 오빠들도 그래요. (총여에서)나가라고. 사회에서 안 좋게 본다고- 되게 진-지하게 말씀해주시는 오빠가 한 명 있죠.
- 연구자: 회사에 취직할 때 불리하게 된다고?
- G: 아무래도 이런, 이런 거 하면은 뭐, 출산휴가 뭐 이런 것을 되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그러면은 상사들이 싫어한다.

G는 대학사회 문화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하나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 G: (페미니즘에 대해)알기 두려운 것 중의 하나가. (중략) 제가 걱정되는 건 불편함. 언제 자책감을 느꼈냐면요. 예비대학⁴⁰⁾ 때 러브 샷 했다고 그랬잖아요. (원치 않는 스킨십을 유도하거나 이성애중심적인 놀이문화라는 점에서)저는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에 대한 굉장한 자책감을 느꼈어요.
- 연구자: 왜 말할 수 없을까.
- G: 아무래도 다들 즐기는 분위기이구.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그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싹 가라앉게 되고. 그렇다고 제가 아주 재밌는 게임

40) 대학 입학 전 합격자 신입생 환영회. 선배들과 신입생들과의 첫 만남을 갖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

을 내놓거나 그런 대안이 없잖아요.

G와 H는 페미니즘을 알아갈 수록 더 내적 갈등이 심해졌다고 한다. 안티페미니즘 통념을 인식하면서 더 이상 페미니즘에 대해 알아가기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고자 한다.

- G: 여성주의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싫다고 그랬어요. A언니가 ‘왜?’ 그래서 좀 알아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 그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 H: 페미니즘이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상생활에 적용되기에는 어
 - 아직까지는 개선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 연구자: 어떤 게? 페미니즘이 개선될게 많다는 거? 아니면
- H: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인식이 좀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어우
 - 재는 왜 저래? 꼭 저렇게 애길 해야 돼?’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페미니즘. 언니들이 ‘페미니즘 공부해볼래?’ B 언니가 얘기했을 때 망설였던 게 언니들을 봤을 때 너무- 언니들이 되게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중략) 어. 그러니까 세상과 맞서야 하는 거 같아요.

4) 전략4: 내재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이것은 다음 절에서 분류한 네 번째 집단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연구참여자 I와 P는 자신이 페미니스트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한 호명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가가 중요하며, 그것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로운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페미니스트 실천이라고 본다고 한다.

두 사람 다 타인에 의해 ‘페미니스트’라는 낙인이 주는 위축감으로부터 자유로

운 편이며, 다른 연구참여자와 달리 대면하게 되는 상황에 방어하기보다는 자신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의미부여 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 연구자: 요즘은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면 소수자가 된다는 느낌이랄까? 커밍아웃 해야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다 이야기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나) 학교에서도 그러한지?
- I: (중략) 반응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설득하려 하죠. 그렇지 않아. 그거(여성우월주의) 아니야.
(중략)
- 연구자: 그러니까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쭈뼛쭈뼛하거나 이런 건 없다.
- I: 예.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것들) 그게 맞는 거니까.

한편 역으로 이들이 하는 활동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너는 페미니스트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듯 했다.

- P: 페미니즘에 있어서 관계 문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거구나. 선배들은 그것을 자꾸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것보다도 관계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구- (중략) 굳이 거창한 일 안 벌이더라도 자기네들끼리 모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을 텐데- (중략) (많은 여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여성으로서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조직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근데 너무 이름붙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운동이다. 어떤 것은 운동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닐까. (중략)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운동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읽은 책(여성주의를 다룬 책)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나 여성주의 싫어.’라고 할 정도면 또 자기가 그만큼 고민한 친구들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여성주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더 관심 갖는 친구들도 있고.

P는 페미니스트 실천이 반드시 조직화된 운동의 형태로 드러나야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페미니즘을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사회의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라면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재적인 의미부여는 이들이 페미니즘 관련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며, 자신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을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개인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에 따른 태도

연구참여자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대처 전략을 여러 가지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다. 각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 본인이나 집단 내부 구성원이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지에 따라 개인적 정체성으로서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여성주의자’ 정체성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을 크게 네 가지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각각이 보여주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1) 전략으로서의 ‘여성주의자’ 정체성 유연화

첫 번째 집단으로 분류된 이들은 대체로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이 집단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들은 A, B, D, O, Q, R, S, T이다.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현재 자신의 일상에서 페미니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앞으로 활동이나 진로가 꼭 페미니즘과 관련된 분야가 아니더라도 페미니즘이 자신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 각자 이해하고 있는 ‘페미니즘’에서 차이들을 보이고 있지만, 적어도 자신이 페미니즘을 통해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입장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페미니즘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따라 이들이 쓰는 대응 전략은 가변적이고 모호할 때가 있다. 여러 가지 태도들 중 두드러지는 점은 여성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기 정체성을 감추거나 또는 누구나 ‘win-win’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페미니즘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으로서의 여성주의자 정체성 유연화는 연구참여자들 스스로 페미니즘의 정치적 목표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거나 성차별적 현실에 타협한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가) 학교 연구참여자 A와 B는 총여학생회 내 다른 구성원들에 의해 ‘(진짜) 여성주의자’로 규정되어있다. 흥미로운 점은 ‘진짜’ 여성주의자는 단 한 가지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구성원들의 표현에 따르면 A는 좀 더 ‘포괄적’인 여성주의자이고, B는 ‘강경한’ 여성주의자이다.

- G: 여성주의 있잖아요. A언니랑 B 언니는 (여성주의자인게) 맞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성주의자가)아니예요.
- 연구자: 어디서 그런 게 느껴졌는지
- G: 그냥 처음에 왔을 때 달랐는데 다들 밥을 먹으면서 일상적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 언니는 계속 총여 어쩌구 저쩌구
- O: 어떤 남학생이 저보고 ‘누나는 우리 반의 여성주의 담지자잖아요?’ (웃음) 이걸 새내기가 이 말 한다는 것도 독특한데 어쨌든- (중략) 저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요. (웃음) 네. 그게 저의 정체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란 언제, 어디서든 페미니즘 운동에 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페미니스트로 인식 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성차별적이거나 성역할을 강화하는 상황에 문제제기를 할 때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타인으로부터 예민하고, 불편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 B: 여자를 차별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을 듣게 되면 문제제기를 하는데, (중략) 나와 인간적으로 아주 친해도 (중략) 제가 지적을 하면 그 오빠는 아예 말을 안 해요. 페미니스트와 대

화하기를 꺼려하는 거 같기도 하고...

- D: 이미 강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벌써부터. 농활 때 '성평등 주체'하고 그랬거든요. 자기 의견을 강하게 말하는 친구(라는 인식이 있어요.)
- T: 저는 그 당시(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준비하던 당시) (중략) 여기서(새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유일하게 마초적이지 않은 사람은 나 뿐이니까 많이 설득을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 그래서 그 당시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우고 나니까 2학년 1학기 그- 6개월 내내 온 몸에 가시가 돋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 활동을 같이 한 친구(중략)가 본 나의 모습은 파이터.

그러므로 이들의 화두는 페미니즘을 왜곡되지 않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집단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앞서 본 첫 번째 전략과 두 번째 전략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시도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만 표현한다는 것은 페미니즘적 실천과는 무관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한다.

A와 B는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독자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안티페미니즘 통념에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있었다. 또한 총여학생회 사업들에 대한 학생들의 외면을 극복하기 위해 여학생 복지 사업을 주력하게 되면, 학생들과 접촉하게 되는 면은 넓어질지 몰라도 전혀 여성주의적 시각에 대해서는 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 A: 여성주의가- 뭐랄까. 일단 자체 담겨 있는 편견이 있잖아요. 그럼 그 편견을 깨는 운동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여성주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건지- (중략) (총여학생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지금- 아 진짜. 뭐 했다고. (여성물품)공동구매. 공동구매(가 무슨 여성주의예요.)(중략) 그러니까 이걸

(여성주의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현 상황) 똥
을만한 뭔가를 계속 해나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만들고 있고, 여기서 치고 들어오면(여성우월주의라고 비난하면)
하~ 그러고 있고.

- B: 아무리 해도 떠오르는 단어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계몽.(중략)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이 이
러이러하지 않냐~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대중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말 하는 것
은 ‘여자들 공동구매 하자.’ 뭐 ‘여자들 복지 늘려라.’ 뭐 이런 거니
까. 여기에 맞춰서 소통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페미니즘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고-

2) 지향으로서의 유연한 ‘여성주의자’ 정체성

두 번째 집단으로 분류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서술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상을 정해놓고, 자신이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이들은 페미니즘 가치는 지지 하지만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과 같은 표현을 한다.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경험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 자기 안에 남아있는 가부장성 때문에 스스로 ‘여성주의자’라고 정체화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E는 선배 B를 통해 “페미니즘 캠프”에 참가하게 되면서 총여학생회 집행부를 하게 되었다. 첫 페미니즘 캠프 때에는 전혀 공감대를 형성되지 못하다가 두 번째 페미니즘 캠프 때부터 페미니즘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자신의 일상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여성주의를 지지하게 된 사례이다. 그러나 단지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페미니즘 지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 E: 제가 갖고 있는 큰 고민이. 이제 페미니즘이 뭐다 알았고, 일상생활에서 페미니즘 시각으로 봐 가고 있고- 그런데 학생회 하면서 집회 있고 그러면 나가고 그래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일상적으로도 여성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여성주의자들은 모두 나가서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러는 걸까? 집회 나가고 그런 게 아직 용기가 없어요. (중략) 아 이렇게 저항을 안 하고 그러면 여성주의자라고 볼 수 없는 걸까? (중략) 아직 그렇게 막 권리를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페미니스트라고 하기에는 저 스스로 내공이 부족한 거 같아요. (중략) 지식으로도 알고, 그래서 얘기할 수 있어야(실천할 수 있어야) 페미니스트일 수 있지 않을까.

즉, E가 이해한 여성주의자는 여성주의에 관한 공부를 하고, 그 가치에 대해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정치적 주장, 행동까지 결합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여성주의가 되는 것이다.

(나) 학교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1학년 입학하자마자 학생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선배 I를 통해 여성주의 모임에 들어오게 되었다. K, L, M의 페미니스트로서의 ‘개인적’ 정체성은 비슷하다.

- L: 아직은 페미니스트가 아니구요. 잘 모르니까.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어정쩡하게 밖에 서 있어요. 기웃거리면서- 아직은 ‘하수’⁴¹⁾라 (페미니즘에) 감히 진입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자기 입장이 있고, 내 판단에 의해 여성주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레벨이 ‘하수’

이렇게 개인적 정체성에서의 모호한 표현들은 이들이 지향하는 페미니즘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보인다. 연구참여자 C는 아직 페미니즘에 대해 더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지향하는 목표는 A 와 같은 포용적이고, 확장된 개념의 페미니즘이다.

41) 레벨을 나타내는 인터넷 게임 용어. ‘진짜 페미니스트=고수’라고 빗대어 자신이 아직 낮은 레벨 ‘하수’에 있다고 표현한 것.

- 연구자: 그럼 C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지?
- C: 음- 문하생?
- 연구자: 누구의 문하생?
- C: A 언니의 문하생이요.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고, 저만의 관점을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중략) 지향하는 페미니스트라면 A 언니와 비슷한... (B언니의 페미니즘을 지향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 집단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첫 번째 집단과 비슷하다. 그러나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이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와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집단에게 ‘여성주의자’ 정체성 유연화는 현실과 ‘타협’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해석되지만, 두 번째 집단의 경우는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지향하고자 하는 페미니즘의 상 자체가 유연하고, 확장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아직 여성주의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티페미니즘 통념에 직면하게 되면서 주로 이러한 전략을 선택하고, 이념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나) 학교 여성주의 모임 구성원들의 경우 여학교라는 점은 페미니즘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들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상대적으로 위와 같은 ‘유연화’ 전략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직 페미니즘에 대한 명확한 자기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대면하게 된다면 앞서 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향으로서의 ‘여성주의 유연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3) ‘여성주의자’ 정체성에 대한 부인

(가) 학교 연구참여자 G와 H는 처음 총여학생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곳이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총여학생회’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뉘앙스, 그리고 총여학생회 사업과 여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보면서 ‘여학생을 위해 사업을 하는 곳이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고 한다. 외부 사람들은 총여학생회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페미니스트로 보지만 본인들은 명확하게 자신은 ‘여성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 G: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너는 그럼 페미니스트니?’) 그럼 ‘아닌데요’라고 대답해요. 진짜 아니니까요. 일단 언니들한테 (페미니즘 관점이 없다고) 많이 지적당하고 있는 상태고,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최근 몇 년 사이 총여학생회 활동을 했던 1, 2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그렇듯 G와 H는 페미니즘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상으로 배웠다고보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인정에 따라 ‘페미니즘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적합한 표현양식을 습득하는 중이었다. 1년 동안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있기 마련이고, G와 H의 사고와 행동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 H: 근데 제가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원래 제가 살아왔던 방식과 좀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거는-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면을 그렇게 보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 단어 중에 ‘남자답고, 여자답고’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되게 (페미니스트들은)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원래는 그런 단어(성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에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중략) 그런데 어떤 오빠가 ‘야. 그 여자애는- 겉은 남자다운데 목소리는 여자 같아.’ 그런데 그거에 제가 갑자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빠는 남자답고, 여자답고의 기준이 뭐냐’고- 제가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 연구자: (총여학생회) 언니들이 하던 이야기를(웃음)
- H: 어. 그러니까요. 처음엔 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거잖아요. 너-무 당황했어요. 저 자신도- (중략)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저도 좀 ‘어~ 괜히 얘기했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흥분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G와 H가 페미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무조건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면서 바뀌게 된 행동양식들도 있지만 주로는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에서 오는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 집단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종종 페미니즘 경계를 확장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적 갈등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이들은 성차별적인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들과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자신의 무기력함, 생각하는 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페미니즘을 알아가기를 거부한다. 매 순간마다 페미니즘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과 부딪쳐야 하는 어려움들로부터 회피하고자 한다.

- G: 전 여성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성주의자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성주의자 안에서도 말 그대로 강경한(?) 여성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사고방식이나 언어 면에서만 조심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사고방식이나 하는 말에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강경한’ 여성주의자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페미니즘적 실천을 꾸준히 한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G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동 양식을 바꾸는 정도로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앞장의 G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선배들의 ‘지적’은 이들의 발언과 행동이 총여학생회 구성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선배들로부터 자주 ‘지적받고, 혼나는’ 경험은 본인이 여성주의자가 아니라고 정체화 하는 것을 굳히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총여학생회가 추구하는 바와 본인들의 개인적 정체성이 일치하는 정도가 낮아지게 된다.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내부인인 동시에 온전히 그 그룹

내부에 속할 수 없는 외부인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내부 구성원들과의 결속력을 느슨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4) 정체성에 대한 명명 거부

네 번째 집단에 속하는 연구참여자 I와 P는 굳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념적 지향에 가두고자 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페미니스트로서의 개인적 정체성은 타인에 의한 규정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페미니즘을 지향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연구참여자 I는 보통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의 목표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되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좀 더 ‘폭넓은(다른 사회적 소수자도 포괄하는)’ 여성주의라고 말한다.

- I: 실제로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들이 많지만 어쨌든 지향하는 바는 젠더 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성’에만 편중되지 않은, 모든 성을 아우르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답답해요. 내가 더 해보고 싶은 것은 젠더 평등인데, 그게 그럼 이게 (보통 ‘여성주의자들’과) 다른 길인건가? 그래서 더 결심할 수 없는 거죠. (중략) 전 아직 여성주의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에 기초하고 있죠. (팔을 양 옆으로 벌리면서)(다양한 여성주의 스펙트럼 중에)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며) 저는 여기에 떨어져 있어요. (중략) 여성의 억압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들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만약에 억압받는 여성이 있어요. 억압받는 노동자도 있어요. 억압받는 장애인도 있겠죠? 그럼 저는 1순위를 여성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I는 양성애자이지만 성소수자 단체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하기로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성소수자 운동이 너무 좁은 범주로 주체를 설정하며, 스스로를 ‘피해자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I가 말하는 ‘젠더 평등’의 “젠더”는 남녀의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성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넓

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규정지을 때,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직면하는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계급 문제가 1순위일 때도 있고, 성소수자 문제가 1순위일 때도 있기 때문에 늘 페미니스트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 페미니스트라고 규정될 때 굳이 부정하지는 않는다.

- I: 다양한 관계에서 만나는 남자들은 “야, 너 혹시 페미니스트냐?” 라고 물어보면 “그래. 너가 뭘 페미니스트로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 나 페미니스트야.” “그럼 너도 군가산점제 반대하냐? 그럼 너도 혹시...(꼴페미 그런 것?)” “어. 나 (군가산점제) 반대해. 근데 너가 상상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야.” “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구나.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한 것 같은데 너는 아니구나.” 그런 느낌.
- 연구자: 그럼 나한테 얘기할 때는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그런 친구들한테는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 I: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페미니스트로 볼 것 같아요. 여성 억압에 분노하고,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아직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스트여야 할 것 같아서.
 - 연구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 I: (나를 설명하는데 ‘페미니스트’라는 꼬리표가 딱 맞는 건 아니지만)틀린 말도 아니지.

P는 꼭 ‘페미니스트’라는 기표에 갇힐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페미니스트를 어떤 고정된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규정해 버리는 순간 페미니즘 관련 활동이 경직되어버린다고 보는 것이다. 주변 학생운동 활동가들에게 있어 페미니스트란 사회·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P는 대상에 따라 본인의 정체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 P: 저는 기여도 되고(페미니스트여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두개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는 운동하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거야.’(웃음) 그거 뭔 소리야? 아무튼 운동하는 거, 운동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조직 운동가인거, 조직 운동가가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중략) 근데 페미니스트란 말도- 사실 저도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페미니즘이 나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렇게 사회를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누가 나한테 ‘너(는 열심히 운동하고 있지 않고, 활동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페미니스트가 아니야~ 뭐, 그렇게 대충 살아~.’ 뭐. 그럼 ‘그래’
- 연구자: ‘나 페미니스트 아닌가보지.’라고
- P: 네. 오히려 그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페미니스트라는 표식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이념적인 페미니스트에 도달하기 위해서 날 희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제 동생을 계몽시키려고 한다던가? (중략) 생각을 돌려놔야 마음이 편하나? 저는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동생도 동생 나름의 경험이 있고, 엄마도 엄마라는 사람의 삶의 궤적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이런 것들을 찾게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 연구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경험을 부정하지 않지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중략)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로서의 본인 정체성이) 어떤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 P: 그렇죠. 저는 되게 상황주의자인 것 같아요.

이들은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으로서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이 주변의 시선에 의해 어떻게 규정되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대신 대면하게 되는 상황들을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본인이 추구하는 ‘여성주의’ 방향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들의 개인적 정체성은 가변적이지만 타인의 시선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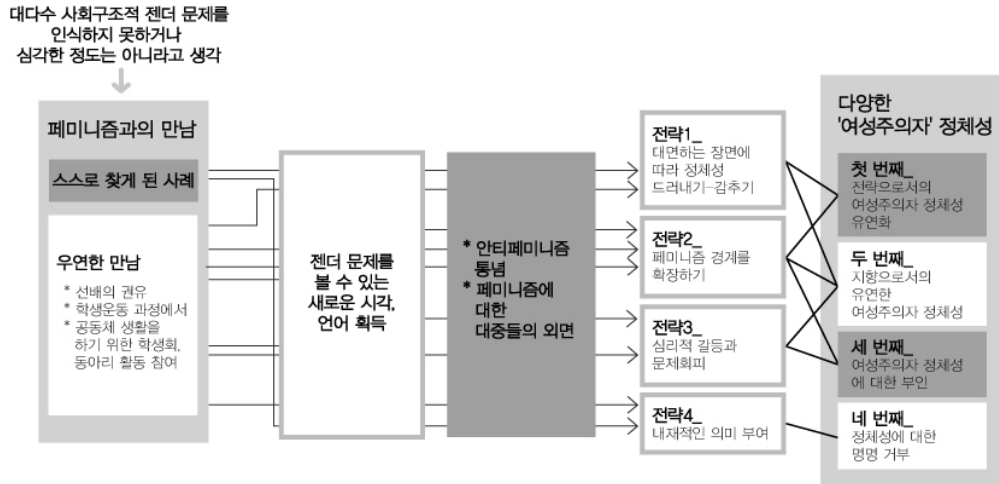
3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연구참여자들은 꼭 젠더 억압적 경험을 토대로 페미니즘을 목적의식적으로 찾았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 우연한 기회에 대학 내 여성주의 활동 그룹에 들어가게 되었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꾸준히 영향을 받고, 변화하고 있다. 같은 활동 그룹 내에 선형적으로 합의된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없다. 그보다는 연구참여자 개인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을 통해 “무엇이 페미니스트로서 적절한 행동 양식이고, 페미니즘에 적합한 실천인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내부구성원들의 동의와 인정이 필요하다. 즉, 실천 방식이나 활동 목표는 내부 구성원들과 갈등과 타협, 개인들의 주장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을 반복하면서 구축되는 것이다.

개인마다 젠더 경험이 파편화되어 있고,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정도와 수용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이들은 새롭게 알게 된 페미니즘에 개인의 경험을 투사하면서 젠더적 경험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종종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다양하다. 이러한 전략을 네 가지로 나누면, ① 대면하는 장면에 따라 정체성을 드러내고 감추면서 다르게 연기하기(acting out), ② 여성우월주의나 여성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페미니즘 경계를 확장하기, ③ ‘여성주의자’ 정체성에 대한 내적 갈등과 문제 회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④ ‘여성주의자’ 정체성에 대한 규정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활동에 내재적인 의미 부여하기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 가지 전략 모두 ‘유연한’ 페미니즘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정치적 성격이 희석된다는 평가들은 바로 이러한 지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정치 활동 자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는 현실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결국 많은 경우 대학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게 될 것이다.



〈그림 2〉 연구참여자들이 쓰는 다양한 전략과 ‘여성주의자’ 정체성 형성

연구참여자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유지, 재생산, 갱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들과 그 태도들을 보면서 ‘여성주의자’ 정체성을 다시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한 집단은 동시에 여러 가지 전략을 쓰기도 한다. 첫 번째로 분류한 집단은 ‘여성주의자’ 정체성을 드러내기-감추기 전략을 쓰거나 페미니즘 경계를 확장하면서 개인적 정체성으로서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을 유연한 것으로 보이고자 하였다. 두 번째 집단이 쓰는 대처 전략은 첫 번째 집단과 비슷했다. 그러나 두 집단이 자신들이 쓰는 전략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첫 번째 집단에게는 그러한 전략이 ‘현실 타협’으로 해석된다면 두 번째 집단에게는 유연한 여성주의 그 자체가 지향하는 페미니즘 상이었다. 세 번째로 분류한 집단은 페미니즘에 대해 일정정도 받아들이고, 소속 그룹의 집단적 정체성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행동 양식이 변화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매 순간 여성주의자 정체성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한편 네 번째 집단의 경우는 안티페미니즘 통념에 위축되지 않고, 여성주의자라는 규정과 낙인에도 크

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았다. 이는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페미니스트와 개인적 정체성의 동일시 정도가 낮다고 해서 정치적 실천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은 같은 활동 그룹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정체성으로 인해 분열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내부 구성원간의 인정과 합의를 거쳐 조직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 때 조직 내부 구성원간의 내부 결속력이 높아질수록 조직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데 수월해 보였다. 이들을 묶어주는데 있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이념의 ‘공유’가 아니며, 오히려 개인들의 문제의식을 소통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 구조가 좀 더 결정적이라고 보여진다.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정치적 주장의 인정과 합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검토하다보면 집단 내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제 4장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가능성과 전망

4장에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여성주의자’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또는 집단적 실천을 통해 각 그룹이 어떻게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본다. 페미니즘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 연구참여자들의 주장들은 서로 경합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내부 구성원 간의 합의점을 반복 확인하면서 집단적 정체성을 구축하게 된다. 이 때 각 그룹이 특정한 페미니즘을 지향하거나 실천한다고 해서 모든 내부구성원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것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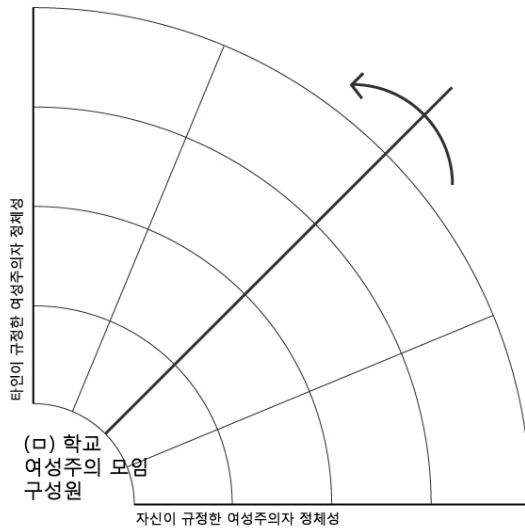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절에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의 분포 양상을 보면서 그룹별로 잠재되어 있는 갈등 요소들을 보도록 한다. 2절에서는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3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대학 사회에서 페미니즘 관련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는지 보고자 한다. 마지막 4절에서는 제릴리의 ‘정치적 주장하기’의 개념을 가져와 행위 주체의 ‘정체성’ 논의에서 벗어나 ‘정치적 실천’의 문제로 전환하고자 한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 행위 주체들이 단일한 정체성을 갖지 않더라도 단기적인 정치적 실천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집합적 행동을 담보할 조직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후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남은 문제들은 결론에서 간략하게 다루는 것으로 정리한다.

1. 각 학교별 페미니스트 정체성의 분포와 해석

이 절에서는 다양한 활동 전략을 통해 본 각 개인들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이 같은 그룹 내에서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내부 갈등과 구성원들

간의 인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표를 이용해 이들의 관계적 위치를 나타내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수행한 집단 분류가 양적연구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도표를 통해 나타냄으로서 내부구성원 간의 상호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도표의 기본 구조 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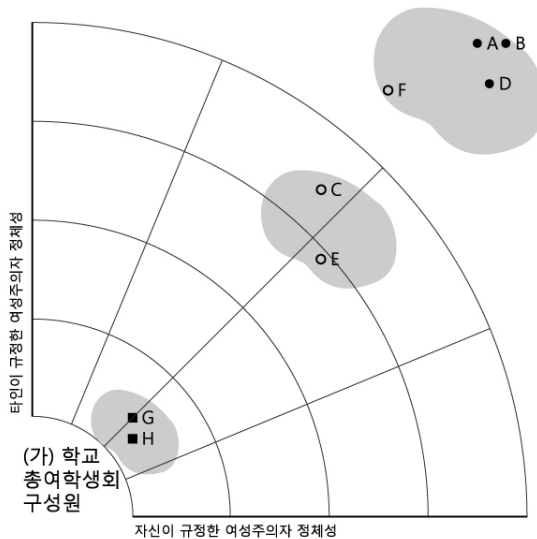
〈그림 3〉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
내부 구성원 간
의 정체성 위치
를 나타내는 도
표

가로축은 연구참여자 자신이 스스로 여성주의자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세로축은 같은 그룹 내부 구성원들이 각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분원의 안쪽에 위치할수록 페미니스트로서의 개인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분원 바깥쪽에 위치할수록 각 개인들이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분원의 가운데 축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왼쪽에 위치할수록 본인이 규정하는 정체성보다 타인들에 의해 더 페미니스트로 규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운데 축에 가까울수록 타인의 규정과 자기 규정이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각 개인들이 ‘개인적’ 정체성에서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는 기호로 ● 첫 번째 집단, ○ 두 번째 집단, ■ 세 번째 집단, □ 네 번째 집단으로 표시하였다.

1) (가) 학교: 집단 내의 갈등과 합의

(가) 학교는 1,2,3집단이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2집단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부 실천 방향이 결정되기 쉽다. 총여학생회라는 조직 특성상 내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사업’의 형태로 드러나기 마련인데, 대중들과의 소통에서 ‘여성주의자 정체성 유연화’를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게 되는 1집단과 2집단은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따라 동일한 견해를 보이기도 하고,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 4〉 (가) 학교
총여학생회 내부
구성원의 여성주
의자 정체성 분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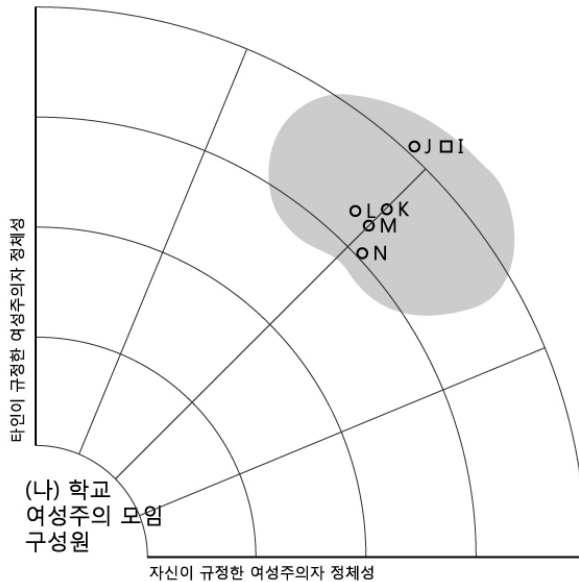
(가) 학교는 내부 구성원 간의 개인적 정체성은 뚜렷하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는 내부 갈등으로 작용한다. 3집단으로 분류된 G와 H는 끊임없이 선배들로부터 ‘페미니즘적이지 못하다.’고 지적을 받곤 한다. 각 구성원들의 발언과 행동, 그리고 총여학생회 사업 논의에서의 다양한 입장들은 매번 페미니즘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으로 그 경계 확인을 통해 이 집단에서 무엇을 ‘페미니즘’이라고 규정하는지 파악하게 된다.

내부 갈등은 이후 활동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인터뷰

당시 2011년도 구성원에서 2012년 현재 총여학생회 구성원은 많이 바뀌었다. 2집단과 3집단은 현재 대부분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4학년이 되어 졸업을 앞두고 활동을 중단한 1집단 일부까지 합치면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해가 바뀌면서 교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나) 학교: 내부 결속력으로 유지되는 조직

(가) 학교 총여학생회와 비교해 보면 (나) 학교와 (다) 학교 여성주의 모임 구성원들의 내부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나) 학교는 페미니즘과 개인적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정도가 (가), (다)학교 그룹 구성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나) 학교 여성주의 모임 자체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는데다가 1,2학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 대부분이 이제 막 페미니즘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별로 없어 모임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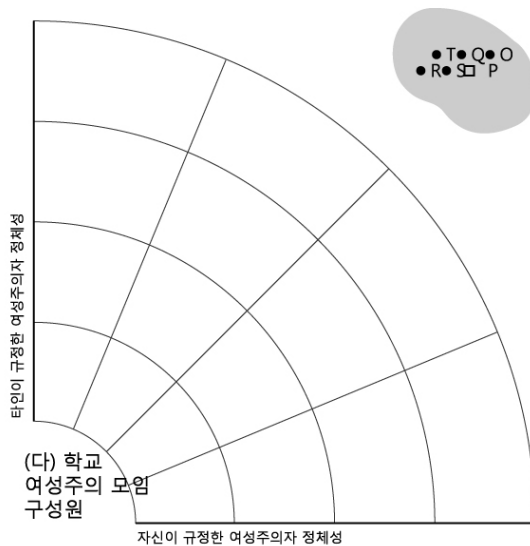
〈그림 5〉 (나) 학교
여성주의 모임
내부구성원의 여
성주의자 정체성
분포

그러나 각 개인들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이 페미니즘과 동일시하는 정도가 낮다고 해서 페미니즘 운동 역량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개인들의 입장과 삶의 변화에 집중되어 있지만 다른 학교 활동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 결속력이 큰 편으로 집단의 활동 목표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이들 구성원들이 해가 바뀌면서 활동 그룹을 나가는 사례는 없었다.

2012년 현재는 2011년 당시 1학년이었던 연구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여성주의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새로 들어온 1학년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에 대해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거나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들어온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다른 두 학교에 비해 모임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다) 학교: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잠재적 갈등

(다) 학교는 구성원들 대부분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있다. 도표상으로는 개인적 정체성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그림 6〉 (다) 학교
여성주의 모임
내부구성원의 여
성주의자 정체성
분포

그러나 페미니즘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가 그룹의 활동 목표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다) 학교 연구참여자들은 최근 각자가 하고 싶은 것과 모임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면서 서로 지향하는 ‘페미니즘’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구성원들이 대학에 들어와 처음 소속해 있었던 학생 운동 정파나 동아리의 특성들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여성노동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구성원이 있는가 하면, 섹슈얼리티나 환경 문제에 좀 더 지향을 두고 있는 구성원이 있다. 조직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구성원의 재생산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지금 현시점에서 본인의 활동이 중심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부 학생 사회와 소통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구성원들을 모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잠재해 있는 갈등은 또 다른 문제와 결합되어 이후 활동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1,2학년이 없고, 구성원 대부분이 3,4학년이기 때문에 이후 진로 준비로 인해 하고 싶은 활동이나 지향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다) 학교 활동 그룹 내부 구성원들에게 있어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는 이 조직의 유지 여부가 될 것이다.

2. 학교별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 내부 역동

각 학교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은 단일한 운동 목표를 정해놓고 페미니즘을 실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구성원간의 인정과 합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집단이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을 구축해 가는데, 이 때 앞서 그림으로 본 내부 구성원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의 분포 양상은 각 그룹이 어느 지점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각 그룹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와 인정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갈등과 인정 사례를 각각 보면서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만들어 내고 있는 실천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학교와 (다)

학교의 사례를 통해 그룹 내부 역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한다.

1)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 내에서의 갈등사례

(가) 학교 총여학생회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2집단이다. 이들이 1집단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좀 더 페미니즘적인 내용들을 담고자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3집단의 의견을 인정해주면서 총여학생회와 학생들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된다.

〈(가) 학교 총여학생회 사례〉

C는 선배와 의견 충돌 과정에서 자신의 우선순위가 페미니즘적 가치 실현 보다는 학생회 대중성에 좀 더 초점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덜’ 페미니스트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선배의 “페미니즘” 운동 방식에 예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 연구자: C와 B의 차이는 무엇인지.
- C: B 언니와 저의 차이는 “우선순위”겠죠? 사업을 할 때에도 아, 이것은 일례인데요. 이번에 외부 업체에서 메이크업 강연이 총여학생회로 들어왔어요. 물론 그게 (외모지상주의를 강화하고, 페미니즘 지향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지양’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혜택이 많잖아요. 학우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입장은 “(유치)해야 한다.”였는데, B 언니는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중략) 저는 그게 합의가 안 되는게. 총여“학생회”잖아요. 언니는 총“여” 학생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페미니즘을 지향한다면 이러한 논쟁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메이크업 강연 유치’ 같은 사안을 두고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이유는 학생 사회에서의 고립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논쟁은 학생회 선거

시기 정책 논의에서도 볼 수 있었다. 총여학생회 구성원들은 모두 총여학생회와 학생들간의 ‘소통’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 모두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제시한 방안들을 보면 개인들의 정체성에 따라 방점을 두고 있는 지점이 다르다. <표 2>의 내용은 이들이 총여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정책 토론을 한 내용을 메모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표 2〉 (가) 학교 총여학생회 정책 기조 토론 내용

〈합의 지점〉 모두가 공유하는 문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전달할 수 있을까? - 일상적으로 다가가면서 총여학생회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 공감, 감성, 치유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 			
〈의견의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를			
1집단(B, D)	2집단(C, E, F)	3집단(G, H)	
<p>B: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여성주의) 학습도 하고, 총여 존재를 고민해야 한다. 총여가 복지만을 주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복지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총여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 총여만의 독특한 이점, 역할이 있었으면 한다.</p> <p>D: 총여학생회 공간,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보자. 세미나실 대여하던가. 여성학 관련해서 성교육이라던가 비폭력대화 같은 내용을 다룬 강좌를 개설한다던가, 강의 사업을 통해 사람들이 여성주의를 접할 수 있도록 해보자.</p>	<p>E: 사업을 해도 잘 모른다. 홍보를 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총여학생회가 자기 공간이라기보다는 여러운 공간이라는 생각을 한다.</p> <p>C: 이동학생회, SMS 메일링 서비스 과방에 찾아다니는 것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방식을 고민</p> <p>C: 총학생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총여는 왜 '자기들끼리' 한다고 생각할까. 왜 폐쇄적일까? 학생들이 보기에는 큰 사업이 없다거나 총여학생회 사업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다.</p> <p>C: 개인적 감정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20대는 '뭐든 혼자서도 스스로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산다. 화장하는 것, 옷 입는 것조차도.</p>	<p>G: 사람들이 총여학생회 하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 부담스러움.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p>	

이들이 토론한 내용을 보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문제의식은 ‘학생들과 총여학생회가 소통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집단별로 각기 상이하게 이해되는데, 우선 첫 번째 집단에 속하는 B와 D의 경우 무조건 ‘여성주의’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전달 방식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여학생회만의 독특한 역할과 내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내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주의’라는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로 분류된 집단에 속하는 C, E, F의 경우에는 똑같이 ‘소통’을 주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일상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여성주의가 각 ‘개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 개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반면 세 번째 집단의 G와 H는 총여학생회가 대중성을 갖는 것 그 자체에 집중하여 논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대중성은 주로 여학생 복지 사업과 같은 것으로 표현되기 쉽다.

‘여성주의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좀 더 일상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서 총여학생회를 어필하기 위한 ‘여학생 복지 사업’은 정치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 때 똑같은 여학생 복지 사업이라고 해도 ‘여성 물품 공동구매’와 같은 것은 총여학생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메이크업 강좌’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성을 강화하고, 외모지상주의에 편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인 것이다.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세 번째 집단은 이 지점에서 일시적인 갈등을 일으키지만 첫 번째 집단이 왜 메이크업 강좌를 반대하는가에 대한 나머지 집단의 내용적 이해와 합의를 통해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다.

학생들과 여성주의로 ‘소통’하기 이전에 먼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두 번째 집단의 의견은 나머지 집단 모두에게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중성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세 번째 집단의 견해는 첫 번째 집단의 비판에 부딪히곤 한다. 게다가 학년에 따른 발언력의 차이와 구성원간의 관계에서도 두 번째 집단과 첫 번째 집단이 좀 더 일치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집단의 의견은

내부 동의를 받기 어려운 구조이다. G와 H의 인터뷰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는 ‘혼난다, 지적 받는다’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어린 사람’, ‘뭔가 잘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된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관계에서 이들은 그룹의 구성원 경계 밖에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2)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 내에서의 인정사례

다음은 (다) 학교 외모지상주의와 성역할 수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의 사례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주의 모임에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P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던 팀⁴²⁾에서 ‘섹시 댄스 공연’을 프로그램에 넣을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것으로 집단 내 갈등이 있었다.

〈(다) 학교 여성주의 모임 사례〉

- P: 그 때(새터 준비할 때) 선배가 성적 대상화 이런거 얘기를 하면서, 성 상품화 얘기를 하면서 섹시 댄스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어쩌면 그 선배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발의했을지 몰라요. (중략) 그 선배는 댄스 동아리 같은데서 새터 공연에 서는 것을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거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성상품의 한 단면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중략) 그 댄스 동아리 하는 친구랑 새터준비팀이 내린 결론은- 그 동아리 안에서도 그렇게 대상화 되는 것을 되게 싫어했데요.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데요. ‘아니, 우리가 좋아서 춤을 추고 있는데 애들은 재네 왜 이렇게 치마가 짧냐. 기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리가 굵냐. 가느냐. 그런 얘기를 왜 하나?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하고 있는데-’ 어-그러니까 ‘맞다. 그럼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새터 때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발언을, 멘트를 하고 하면 되겠다.’ (중략) 그런 식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면

42) 이 팀은 매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할 때마다 꾸려진다. 각 과에서 한, 두명씩 담당자를 뽑아 성평등,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내용과 프로그램을 기획, 준비하게 된다. 연구참여자 O와 T도 이 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선배의 의견을 꺾고 한거니까. (웃음) 그 선배가 당황해 했어요. 왜냐면은 그게 상식적으로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견이 다르게 나왔고-

‘섹시 댄스’를 공연으로 올릴 것인가, 아니면 여성을 성상품화 하는 측면이 있으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러한 공연은 지양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한 것이다. 평소 여성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었던 선배는 (P의 표현에 의하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즉 여성주의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입장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P가 보기에 그러한 주장은 무리가 있는데, ‘섹시 댄스’를 추는 당사자의 인식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주의’ 입장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제기 방식은 주로 네거티브이고, 그것이 오히려 대립 구도를 강화한다고 지적한다. P가 이 사례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했는데 ‘여성주의자’로 대표되는 선배와 의견을 달리하는 과정에서 팀내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P는 자신의 주장이 이 집단 안에서 ‘여성주의적이지 않은 입장, 주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 사례는 P가 여학생 휴게실과 남학생 휴게실에 관해 주장한 내용이 여성주의 모임 내부 구성원들의 인정을 받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 P: 저는 다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페미니즘도 여휴⁴³⁾를 만들었을 때 당시 역사적 맥락이 있었던 거고- 그 때는 (중략) 그런 (여성이 남성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휴가 등장을 했고, 그것도 되게 싸워서 얻어낸 거니까 정치적 의미가 있고. 그 때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남휴가 만들어진다고 했

43) 여학생 휴게실. 90년대에는 총여학생회나 여학생 자치 모임들이 주축이 되어 대학 내 생활 공간이 남성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여학생 휴게실, 도서관 내 여성전용 열람실 등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러한 여학생 복지 사안은 ‘반성폭력 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을 때 왜? 10년, 5년 전의 논리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을까? 오히려 지금 여휴가 정치적인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여휴의 그런 역사적인, 정치적인 의미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중략) 정말 여성주의가 우리 삶의 플러스 알파가 되려면 여기서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남휴가 생기면 여휴의 정치적 의미가 퇴색된다.’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건 네거티브잖아요. (중략) 지금은 얼마나 여휴가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자문해 보고- 만약 그게 그 당시 시대정신에 지금 그 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정치적 의미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거기서 면 생리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중략) 그러면 휴게실도 많아지고 여휴의 정치적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플러스, 플러스 될 것 같아서 지금 여성주의 모임 하는 애들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아- 되게 좋다고,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남성인데 이 모임에 섞여 있지 않고, (이 공간에)다 여성들만 있었으면 이런 문제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P는 과거 정치적 의미가 있었던 어떤 주장, 행위들도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여학생 휴게실이라는 공간이 갖는 현재적 의미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대학에 입학하는 여학생들의 수는 급증했고, 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주도했던 남학생들만의 생활공간을 좀 더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여학생 휴게실을 만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과 문화 자체가 많이 퇴색되었고, 학생들의 자치 공간도 예전만큼 의미를 갖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여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은 여전히 유효한 사실이지만 남학생들 역시 파편화되어 있고,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남학생 휴게실은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로 귀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P의 주장이다.

이들의 논의 중 주목할 것은 ‘여성주의’는 곧 ‘여학생 휴게실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언제든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특정한 ‘주장’이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내부 구성원들의 인정이 필요한데, 인용문의 마지막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P가 만약 그룹 내 구성원이 아니었고, 이 그룹에 여학생들만 있어서 여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지 못했다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제릴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을 통해 ‘정치적 주장하기’는 필연적으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인정’을 수반해야 비로소 ‘정치적 주장’으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주장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의 정의들(definition)에서의 일치뿐만 아니라 판단들(judging)에서의 일치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용하는 문법은 의미와 규칙뿐만 아니라 규칙의 적용방식까지도 일치해야 하는데, 앞서 본 (가) 학교 총여학생회의 논쟁의 화두였던 ‘소통’은 이러한 면에서 ‘페미니즘적인 것’이라는 규칙을 어느 선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에서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다) 학교에서의 두 사례 논의 과정을 보면 페미니스트들에게 “상식적인” 언어인 ‘성 상품화’, ‘여학생 휴게실의 필요성’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고보다는 어떤 맥락 속에서 그러한 주장들이 유효하고, 유효하지 않은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정한 주장을 내부 구성원들이 동의해주는 순간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은 페미니즘이라고 상정된 정해진 규칙 또는 집단의 공통 인식과 정체성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개별 사안을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집단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반복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집단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본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전 세대 ‘대학 내 여성주의 집단’과 달리 20대, 젠더 경험을 공유하기보다는 불연속적이고, 파편화된 개인의 경험들을 투사하면서 각자의 ‘정치적 주장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총여학생회나 여성주의 모임과 같은 활동을 통해 좀 더 구조화된 집단적 정체성 인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치적 주장하기’가 페미니스트 정치 실천으로서 그 의미를 갖기 위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역으로 ‘동의를 받지 못함’ 역시 내부 역동에 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뜻한다.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과 인정은 그 다음

단계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즉, 구성원의 유지와 이탈이다. 연구참여자 G와 H는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페미니즘을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었지만, 이들의 표현에 따르면 ‘언니들에게 혼난다’는, 다시 말해 자신의 입장과 수많은 행위들이 집단 안에서 인정될 수 없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활동을 지속하기 보다는 페미니즘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었다. G와 H는 이후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 학생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특히 (가) 학교와 (다) 학교 그룹 구성원들이 다른 학생들과의 ‘소통’,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공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주변인들의 반응,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페미니스트 희화화 또는 공격, 그리고 여성혐오에 기반한 온라인 댓글들을 통해 감지하게 된다.

연구참여자 A가 호소했듯이 무언가 정치적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러한 부정적 분위기와 싸우거나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들을 풀기 위한 소통을 하지 않고서는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만의 이슈들을 다룬다는 것이 쉽지 않다. 사회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것이 온전히 의도했던대로 내용이 전달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7월에 진행된 ‘잡년행동’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야한 옷차림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피해자 유발론’을 제기하는 사회를 향해 전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여론에서 부각시키는 것은 이들의 ‘야한 옷차림’ 뿐이고, 시위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곤 한다.⁴⁴⁾

그러므로 연구참여자들은 페미니즘적 시각을 갖게 되면서부터 꾸준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게 되는데, 이 때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의 차이에 따라서

44) ‘잡년행동’의 거리 퍼포먼스, 「한국일보」, 2012.5.18 참고

‘정치적 주장하기’는 지속되거나 위축된다.

- F: 저는 확신이 안 가는 게. 제가 (일상 생활 속 문화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많긴 한데 저는 아직 그런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은 거 같아요. 공부를 하긴 했는데 아직 이게 이런 거다 설명하기에는 힘들고,
- 연구자: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주변의 부정적 반응 때문에 위축되어서인지?
- F: 위축되기도 하고, 우리끼리(여성주의 모임 구성원들끼리)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잖아요. 굳이 언어로 풀어내는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바깥세상)언어로 풀어내야 하는데. 나한테 당연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연구참여자 F는 교양 수업 중 성폭력 관련 법을 설명하는 교수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뒤로 누군가에게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페미니즘’이 상대방에게서 거부당하거나 비난받을 때 여성주의자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한편 대학이라는 공간은 성별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B: 대표적인 것은 외모. 외모는 오히려 여성주의를 공부하고 나서 더 집착하게 되었어요. 아주 고등학교 때나 대학 초에는 되게 똥똥했거든요? 그런데 (살이 빠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예쁘다.’그러니까 ‘아, 내가 예쁘구나.’(알게 된 거죠.) 그 전부터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신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있었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옆에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영향을 되게 미친 거 같아요. (중략) 여성주의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시각이 잡혀가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니까 (자꾸 나도 외모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는 현상은 인터뷰 과정에서 여자대학교인 (나) 학교보다 남녀공학인 (가), (다) 학교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이들의 사회 관계적 위치는 주로 학교 성적이 결정적인 요소였다. 특히 (다) 학교 여학생들은 대학 이전까지는 월등한 성적으로 남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여성이 아닌 ‘무성적 존재’로 위치해 있었다.

- O: 저는 뭐라고 해야 하지? 좀 무성적인 존재?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때 어땠냐면 저는 좀 성적이 좋았고- 고등학교 때도- 그런데 남자애들은 (중략) 본인들 생각하기에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좀만 노력해도 되지만 여자애들은 노력만 하고 성적은 그래봤자 안 된다.’고 생각해 있었는데 제가 좀 더 잘 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논 외?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해서

그러나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면서 이들은 ‘능력 대 능력’이 아닌 ‘성별’로 인간관계가 재편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더 이상 성적이 자신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게 되면서 ‘여성스러운’ 여학생과 ‘그렇지 못한’ 여학생으로 구별되고, 그에 따른 다른 대우를 경험하게 된다.

‘여성스러운’ 여학생은 남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여동생, 여자 친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자신을 보며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과 행동 사이의 괴리감을 경험한다.

- T: 근데 사실 합리화-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겐 아무리 한 두 살 정도 어리다지만 남자애들이 무섭고,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그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 증된 사람. 그 08학번 오빠의 어떤 여자 친구 역할을 하면서 ‘나 남자친구 있으니까 건드리지마.’ 그거 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기분이 착잡한 거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질 때에만 관계맺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박탈감은 후자에 속하는 여학생의 경우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여학생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섹슈얼리티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R: 저는 아무래도 공부를 좀 잘 하고, 촉망받는 학생이었으니까 저는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고3 끝나갈 때 선생님이 나의 몸을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은연중에 하시는 거예요. 나는 공부 잘 하는 학생으로 선생님들에게 인식되었지 몸으로 인식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선생님들 사이에서 내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여자라는 표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대학 와서 공부 잘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OO대학교라는 사회에서, 나는 외모가 예쁘지 않은 여학생이라고 규정되고, 노출되니까. 나 어떻게 여기에 적응하지? 약간 충격이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역할에 저항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성역할을 수행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페미니스트로서의 개인적 정체성은 완성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하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끊임없이 좁혀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으로 과정적인 성격을 갖는다.

(가), (다) 학교와 달리 (나) 학교 여성주의 모임 구성원들은 여자대학이라는 특성상 이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상대적으로 덜 겪고 있었다. (나) 학교 여성주의 모임 구성원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가), (다) 학교 연구참여자와 달리 주변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과 여성주의 모임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나누고, 주장할 때 지지받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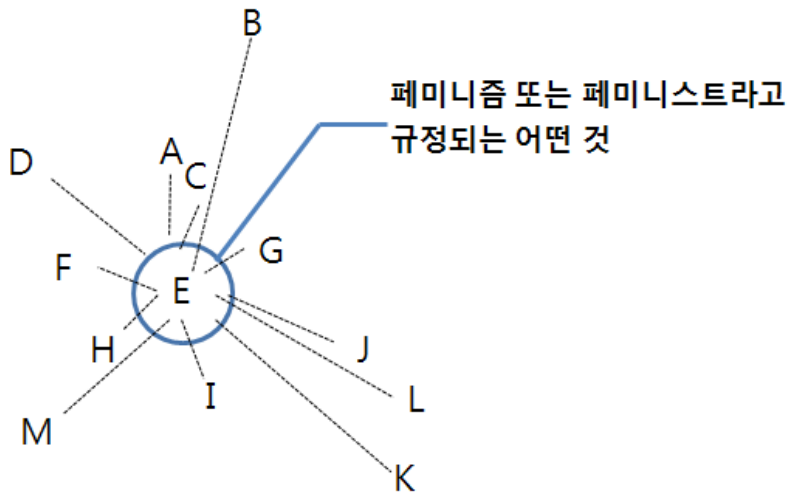
이러한 경험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페미니즘이라고 이해한 것에 자신이 동의를 한다고 해도 주변의 부정적 시선이나 공격은 관련 활동을 그만두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적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거나 페미니스트로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자신을 위치 짓는 경우 주변의 반응에 따라 훨씬 더 가변적인 정체성을 보이며, 여성주의 모임 내부 관계보다 외부의 관계 결속력이 더 높

은 경우 이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4. 다양한 정체성‘들’과 페미니즘 실천의 가능성

1) 단일한 정체성을 전제하지 않는 행위 주체

앞서 보았듯이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양한 ‘여성주의자’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연구참여자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표현하는 방식과 그 내용을 보면 ‘페미니즘⁴⁵⁾’ 또는 ‘페미니스트’라고 암묵적으로 약속된(혹은 규정된) 어떤 것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정의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지에 따라 ‘페미니스트이다. 아니다.’ 등으로 ‘개인적’ 정체성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시각화 하면 <그림7>과 같다.⁴⁶⁾



〈그림 7〉 보편적 개념의 ‘페미니즘’과 동일시 정도에 따른
행위 주체들의 위치

45) 페미니즘에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억압 문제를 다룰 수는 있지만, 주로는 ‘여성’ 억압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여성해방 이론과 실천이라는 개념으로서의 ‘페미니즘’

46) 여기서 쓰인 A, B, C... 기호는 연구참여자들을 표현한 기호와 무관하다.

중요한 것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페미니스트 정치 위기가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 간의 차이를 드러내거나 ‘여성’ 범주의 불확정성을 드러내면 ‘여성’의 이름으로 말할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조주현, 2010). 이러한 생각들을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현재 상황에 적용해 보면, 하나의 단일한 페미니스트 집단을 구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정치 실천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이후 운동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진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릴리는 위와 같은 문제설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버틀러가 그랬듯이 “내가 정치적으로 행동할 때 나는 주체가 된다.”는 점, 즉 내 행동에 앞서 주체가 미리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버틀러, 2008) 그 주장은 옳지만 정치적 주장을 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릴리는 실천으로서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아렌트의 설명을 가져오면서 페미니스트 커뮤니티 내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 ‘정치적 주장하기’가 받아들여져야만 비로소 정치적 행위가 성립된다고 말한다(Zerilli, 2009).

2) ‘정체성’ 논의에서 ‘정치적 실천’으로의 전환

그렇다면 제릴리의 주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단일하지 않은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합의’를 만들어 가는가?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 결과물로 도출되는 것들은 페미니스트 정치로써 의미가 있는 것들인가?

‘어떻게 해야 페미니즘 실천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 규칙은 선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페미니스트 정치를 수행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페미니즘”에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일치시켜 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구성원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인정’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가) 학교 총여학생회 구성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G는 1년 동안 총여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총여학생회가 하는 역할들에 대한 의미나 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가치들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또한 강하게 갖고 있다. G는 페미니스트들의 표현이나 운동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 G: 그거 있어요. 전태일씨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니’라는 표현이요. 페미니스트들이 그 ‘어머니’라는 명칭에 대한 문제제기 했어요. 이걸 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생각 했어요. 그 문제제기한 이유를 보게 되잖아요? 죽어서도 왜 누군가의 ‘어머니’여야 하는가. 그 분 자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내용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좀 뒤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았을걸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나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페미니스트들은) 당장 문제제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겠지만요.
- 연구자: 당장 고인의 장례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시기와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럼 지적한 문제 내용은 이해하는지
- G: 네. 이해는 돼요. 맞는데, (문제제기 방식이) 안타깝다는 생각은 하지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는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G와 H는 페미니스트라면 특정 현상들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입장 자체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입장에 대한 ‘지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인 실천 행위들로 연결되는가 여부로 집단이 나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A와 B은 G와 H를 보면서 총여학생회 내에서 페미니즘 운동의 목표가 합의되지 못하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 A: (저학년 친구들에게 페미니즘이) 영향을 끼치기는 하는데 페미니즘이라는게 사적인 부분(개인의 생활적인 면)에서는 접근이 돼요. 애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페미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을)느꼈어요. 근데 이걸 애들은 (중략) 단순히 경험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를 가보는 ‘(강조하면서)경험’ . (운동이 아닌)경험은 (시도)해볼 수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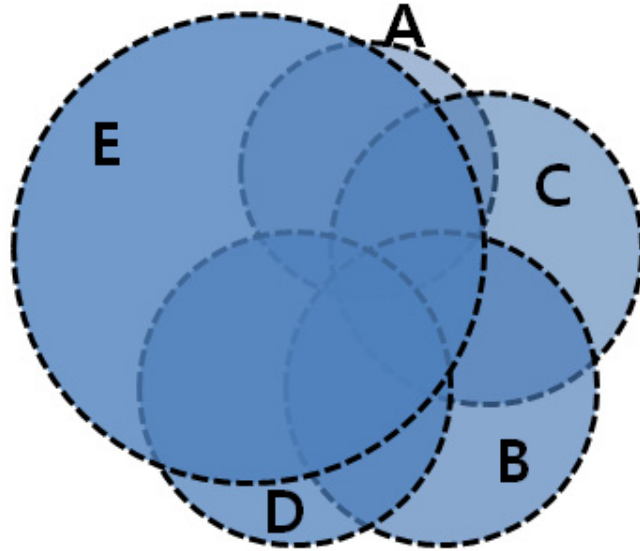
- B: 저는 대중적으로 총여가 각광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주의 철학을 해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총여학생회는 비운동권(반운동권) 총여에서 (어떻게 보면) 더 잘 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 할 때 가장 맹점은 총여 활동하려는 친구들이(G와 H)‘여성이 차별받는다.’는 명제 자체가 합의가 안 돼요. 이게 합의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것 같은데 그것부터 잘 안 되니까. 애들은 필요성도 못 느끼기 때문에 학습을 하지 않아요. 본인이 못 느끼니까요.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차별 받은 적이 없어요.”.

D는 (가) 학교 여성주의 모임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총여학생회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얘기하고, 부딪히면서’ G와 H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러므로 페미니즘과 동일시하는 정도가 가장 낮다고 보는 G와 H와도 일정정도 페미니스트 실천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 D: 일단 (여성주의 모임 밖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해)얘기 잘 안 하구요. 여성주의 시각이 없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러네 라고 공감해주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여성주의 모임은 기본적으로 합의되어 있으니까. (중략) 차별적인 상황이 우리 사회 여기 저기 존재하고 그게 나누기 되게 애매하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르게 느낀다. 적어도 그 세 가지고 여기서는 합의가 된다고 생각해요. (중략) (총여학생회는) 고민인데 11학년 친구들, 10학년 아이들은 그게 좀 어려운거 같아요. 일단 애들이 같이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어렵게 차별이 존재하긴 하는데 나는 좀(경험하지 않았다.) 점점 더 어떻게 감화를 시켜서 애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다행인 것은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부딪히면서. 역으로 이걸 절대 합의 못해.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위에서 인용한 사례들에서 보이는 그룹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묘

사해 보면 <그림8>과 같다.



<그림 8> 집단 내 인정과 합의로 '구성되는' 페미니즘

내부 구성원들 개개인이 이해하고 수행하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저마다 다르다. A가 이해하고, 지향하는 '페미니즘'의 범주가 다른 B, C, D, E의 그것과 온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공통분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의 '페미니즘'은 그 경계가 폐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점선으로 표시) 페미니즘에서 논쟁적인 부분(유동적인 부분)은 그룹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구체적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언어의 사용이나 지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집단 구성원들의 인정과 합의로 그 정당성이 획득된다고 본다. 이 때 언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신상규, 2004) 다만 구성원들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된 핵심 부분은 중심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유동적인 주변부는 끊임없이 교체와 변환 과정을 거친다(조주현, 2010). 그러므로 정치적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 주체의 단일한 '정체성'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이며, 이는 페미니스트 정

치 실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정 정치적 행위가 페미니즘으로 그 정당성이 구성원들에게 인정되고, 유지되는 부분들은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집단적’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지속 여부와 전망은 이렇게 구성원들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에 달려있다기보다는 그룹 내부 역동을 통한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을 할 사람들의 네트워크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제 5장 결론

본 연구는 대학 내 여성주의 그룹에 참여하여 현재 활동 중인 대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 정체성 형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학 내 여성주의 그룹 활동가의 경험을 당사자 목소리를 통하여 포착하고, 이를 통해 ‘단일한’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전제하지 않고도 페미니스트 정치 실천이 가능할지 모색해 보았다. 또한 2010년대 초반 한국의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처해있는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2010년대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현실을 보면 대학에서의 여성주의 세력은 축소되고, 가시화된 페미니즘 이슈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페미니즘 운동이 단일한 운동 주체를 구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의 범주로서의 ‘여성’ 해체”를 곧 “페미니즘 운동 ‘주체’의 부재”로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생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이해하고 갖게 되는 태도들을 둘러싼 복잡한 담론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오류라고 보여진다.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들 간의 차이와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여기에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안티페미니즘 통념까지 더해져 오늘날 대학생들이 ‘페미니즘’ 그 자체에 대해 갖는 태도와 정체성 구성을 둘러싼 담론적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현 상태를 평가하고 단정짓기 이전에 이러한 현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대학에서 여성주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다중적이고 가변적인 여성주의자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과거 대학 여성주의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각성과 학습, 실천을 통해 의식을 고양시키고, 이를 통해 단일한 집합적 정체성을 만들어간 것과는 달리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은 대학 생활과 여성주의 활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재구성하고,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의 이해를 갖는 운동 주체의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 내 여성운동이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보는 시각은 운동 주체가 단일한 정체성을 공유해야 하며, 그 목표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그러나 조 프리만이 지적했듯이 어떠한 사회 운동이든 그 출발이 전적으로 행동 주체들의 자생성에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선형적인 이데올로기나 이념으로 의식화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때때로 사회운동 조직을 사회운동 그 자체인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인(formal) 조직이 체계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일정한 사회·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운동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사회운동 방식과는 달리 페미니즘 운동의 속성상 공식적인 조직 이면의 비공식적 구조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비록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 내 개인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경합하고 있고, 페미니즘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을 곧 조직에 균열을 내거나 운동 역량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논문은 대학생 활동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 시내 4년제 대학교에서 여성주의 그룹 세 곳을 선정하여 그 구성원들을 심층면접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주의 그룹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정체성으로서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은 연구참여자들의 젠더 경험과 대학생활 경험, 그리고 주변의 담론적 환경에 대한 대처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이렇게 구성원들의 의식과 정체성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이 여성주의 그룹과의 관계를 맺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 그룹이 구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합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성격을 가진 자료임을 고려하여, 대학 내 여성주의 그룹의 구체적인 활동 과정에 대한 참여관찰을 보완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과 참여관찰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각 대학에서 페미니즘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활동 양상을 보면 집단 내에 공유된 페미니즘 운동 목표를 실천해나가고 있다기보다는, 개인들이 우연히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각자의 젠더 경험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생활양식을 구성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활동가들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면하게 되면서, 자신의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유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대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면하는 장면에서 따라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감추면서 다르게 연기하기 (acting out)

둘째, 여성우월주의나 여성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페미니즘 경계 확장하기

셋째, 여성주의자 정체성에 대한 내적 갈등과 문제 회피

넷째, 여성주의자 정체성에 대한 타인의 규정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활동에 내재적인 의미 부여하기

연구참여자들은 페미니즘과 개인적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정도에 따라 위 전략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각 전략에 대한 해석과 태도는 여성주의자 정체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내부구성원들의 다양한 정체성은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이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구성원간의 소통 속에서 인정을 얻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구성원들은 “무엇이 페미니스트로서 적절한 행동양식이고, 페미니즘에 적합한 실천인지” 매 순간 확인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주의 그룹의 공동체 역동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어떤 ‘단일한’ 행위 주체를 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러한 주체를 전제로 대학 내 페미니스트 정치가 실천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완전한 ‘개인’으로서 완결된 정체성을 가진 행위 주체가 운동 집단의 공동체에 선행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주장하기’가 개인이 한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적 주장은 공동체 안에서 옹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정과 합의 과정을 통해서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현 상황을 보았을 때, 개인이나 공동체가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어떤 단단한 토대에 근거해 움직인다고 보기보

다는, 타인에 의한 인정에 기초해서 존재하는 ‘정치적 주장하기’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는 제릴리의 주장이 그 타당성을 얻는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상황을 평가해 보자면, 그들 구성원 개인들의 ‘정치적 주장’이 공동체의 소통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 여부로 채택, 기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페미니즘이 무엇이고 이에 적합한 행위와 실천은 어떠한가 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동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젠더 경험과 해석들은 공유되고, 운동의 정체성으로서의 ‘페미니즘’ 역시 그 내용이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들이 갖는 여성주의자 정체성 여부나 그 정체성의 단일성과는 무관하게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에서는 모종의 페미니스트 정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미래가 마냥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개인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만의 독특한 페미니스트 정치 실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이 네트워크로 묶여있지 않으면 그러한 경험은 일반화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 현 상황에서 단기적인 정치적 행동은 가능할지 모르나 집합적 행동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조직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은 현재와 같은 소규모의 분산된 운동으로 고착되거나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운동의 집단적 경험이 다음 운동 세대로 전수되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안티페미니즘 통념이 나날이 그 지배력을 확대해 가는 현실 속에서 대학 내의 운동 조직 유지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이후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성원의 ‘재생산’과 더불어 집단의 운동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자료 보존과 역사의 기록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 활동가의 졸업이나 개인적 상황 변화가 곧바로 운동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도록, 여타의 다양한 페미니스트 그룹들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필요할 것이다.

1. 집합적 경험 전수하기

(다) 학교의 경우 과거 여성주의 모임에서 활동했던 선배들과 현재 여성주의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는 전혀 없다. 선배 활동가들이 만들었던 자료들은 학교에 남아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은 그러한 것이 남아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반면 (가) 학교 총여학생회의 경우,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총여학생회로 지속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활동가들이 과거 총여학생회 활동을 했던 선배들과 간헐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집합적 경험을 전수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집합적 경험을 전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 어떤 활동을 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배 활동가들이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을 하면서 들었던 고민들, 운동 과정에서 경험한 오류와 성과들도 함께 전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생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기록한 물리적 자료들을 보존하고, 선후배간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룹간의 연대. 확장하기

필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반성폭력 운동에 관한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현재 대학생 활동가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본인이 일하고 있는 여성단체에서 5개 학교 활동가들과 ‘반성폭력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각 학교별 여성주의 운동 상황과 활동가들의 고민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 학교 여성주의 그룹들이 처해있는 상황들은 모두 달랐지만 모한티의 표현을 빌리자면 “투쟁하는 공통의 맥락”을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찾을 수 있었다. 대학 내 여성주의 관련 활동 그룹들은 개별 학교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룹과 그룹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통의 페미니즘 이슈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구성원의 ‘재생산’

앞서 제시한 집합적 경험을 전수하는 것과 그룹간 연대 외에도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각 활동 그룹들이 유지되기 위한 구성원의 ‘재생산’이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운동 사회에서 사람을 의식화와 조직화 대상으로만 여기는 부정적 경험 때문에 구성원 ‘재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한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결국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정치적 행위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년마다 학교 구성원의 약 1/4이 바뀌는 대학의 특성상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운동에 유입시키고 그룹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이른바 운동 주체의 ‘재생산’은 조직 유지에 필수적이다.

개인과 활동 그룹의 관계 맺기, 그리고 페미니스트 그룹들 간의 네트워크는 개인 활동가의 ‘여성주의자’ 정체성을 갱신하고, 활동을 지속시켜주는 토대가 되어 줄 수 있다. 페미니스트 정치의 실현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 주체들이 특정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기 때문이다.

20대 대학생 활동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재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이 처해 있는 상황을 검토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페미니스트 정치’와 ‘정치적 주장하기’에 대한 재해석에 있다. ‘정체성의 정치’와 ‘차이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주체(정체성)를 강조함으로써 빠졌던 딜레마, 즉 현재 한국의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의 역동을 읽어낼 수 없었다는 점을 극복하고, 개인적 정체성과 공동체의 활동이 상호작용을 통해 갱신되고 구성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페미니스트 정치의 이론적 초점을 ‘정치적 실천’의 문제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정치적 주장하기’는 고립된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여성운동의 주체는 젠더 관계와 집단적 실천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권김현영(2001). “[기획 산문/절망, 혹은 희망을 향하여 한 걸음: 우리, 20대] 차이에 대해 말하기, 기억과 치유의 정치학을 위하여: ‘영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계급과 문화 정체성”. 당대비평. 15(-):233-44.
- 김보명(2007) “1990년대 한국 대학 반성폭력 운동에 관한 연구 : 대학 여성주의자 집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숙이(2007) “2000년대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신상규(2004)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철학사상.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우석훈·박권일(2007). 「88만원세대 : 절망의 세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서울: 레디앙미디어.
- 이수영(2010) “페미니스트와 포스트페미니스트 세대의 대화”. 영미문학페미니즘 18(1):117-37.
- 이영자(2003) “페미니스트 정체성: 제3의 물결을 중심으로(Feminist Identity: The case of the Third Wave).”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7.
- 이재열·안정옥·송호근(2007) 「네트워크 사회의 구조와 쟁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임국희(2010) “페미니스트 정치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 자기-권리로부터 성찰적 연대와 불투명성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희섭(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조주현(2010) “‘사회적인 것’의 위기와 페미니스트 정체성의 정치.” 한국이론사회학회.(17):53-83.
- 최성희(2008) “페미니스트 페다고지의 정치, 윤리, 미학.”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16(1):167-88.

2. 국외문헌

- Aronson, Pamela (2003) "Feminists or 'Postfeminists'? : Young Women's Attitudes toward Feminism and Gender Relations," *Gender and Society* 17(6):903-22.
- Buschman, Joan K., and Silvo Lenart (1996) "'I Am Not a Feminist, but...': College Women, Feminism, and Negative Experiences," *Political Psychology* 17(1):59-75.
- Butler, Judith, and 조현준. 2008. 「젠더 트러블 :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파주: 문학동네.
- Ferree, Myra Marx (2009) "Feminist Practice Meets Feminist Theory," *Sociological Theory* 27(1):75-80.
- Ferree, Myra Marx, and Patricia Ya Martin(1995) *Feminist organizations : harvest of the new women's move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Freeman, Jo (1973) "The Origins of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4):792-811.
- _____, (1975) "Political Organization in the Feminist Movement," *Acta Sociologica* 18(2/3):222-44.
- Glaeser, Andreas (2009)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Free Action," *Sociological Theory* 27(1):81-85.
- Hall, Elaine J., and Marnie Salupo Rodriguez (2003) "The Myth of Postfeminism," *Gender and Society* 17(6):878-902.
- Mohanty, Chandra Talpade, and 문현아 (2005) 「경계없는 페미니즘」. 서울: 여이연.
- Negra, Diane (2009) *What a girl wants : fantasizing the reclamation of self in postfeminism*. Milton Park, Abingdon, Oxon ; New York: Routledge.
- Zaslow, Emilie (2009) *Feminism, Inc. : coming of age in girl power media*

- cultur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Zerilli, Linda M. G. (1994) "No Thrust, No Swell, No Subject?: A Critical Response to Stephen K. White." *Political Theory* 22(2):323-28.
- _____ (1998) "Doing without Knowing: Feminism's Politics of the Ordinary." *Political Theory* 26(4):435-58.
- _____ (2004) "Refiguring Rights through the Political Practice of Sexual Difference." *Differences: A Journal of Feminist Cultural Studies* 15(2):54-90.
- _____ (2009) "Toward a Feminist Theory of Judgment."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 Society* 34(2):295-317.

3. 신문, 잡지

- 강창욱, 김수현 (2010). "앗! 여학생회가 사라졌다... 나서는 후보 없어 총학에 속속 귀속." in 국민일보 쿠키뉴스.
- 정재호 (2012). "선관위 공개 19대 총선 투표율 분석해보니... '60대 이상·20대 투표율' 12월 대선 승패 가른다". in 국민일보 쿠키뉴스
- (다) 학교 대학신문 (1994.4.) "여성문제를 넘어서 사회전반에 관심을 가져야-학내 여성운동의 현황과 전망"
- _____ (1997.6.) "새로운 여성운동의 모색-페미니즘에서 제기되는 차이 문제의 극복을 위한 몇 가지 고찰"
- _____ (2003.6.) "OO대 여성운동 3세대를 준비한다-90년대 후반 이후 OO대 여성운동의 흐름"
- 박권일 (2012). [20대, '개새끼'와 '영웅'], 시사in 제241호
- 박준범 (2010). "[젊은 시각] '그들만의 리그'된 총여학생회." in 파이낸셜 뉴스.
- 최아란 (2008). "여성학의 현실진단- 이화 안. 밖의 여성학, 위기 통해 성찰을 모색하다." Pp. 10 in 이대학보.

주창윤 (2012). ‘잡년행동’의 거리 퍼포먼스, in 한국일보

4. 미발간 자료

(가) 학교 (2001).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자료집 1호

(가) 학교 (2006). 총여학생회 선거 공동정책 자료집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1995) 1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총회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2004) “대학 내 반성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샵 - 활동가를 위한 도토리 충전”

한국여성민우회, (2012), 15%보다 뜨거운 평등 30%보다 절실한 민주주의. 토론회 자료집

_____ (2012a). 발제문1. 전희경, ‘공정한 경쟁’?: 여성할당을 둘러싼 담론의 젠더 정치

_____ (2012b). 발제문2. 유정미, 할당제, 숫자의 정치를 넘어서

5. 통계자료

총조사인구 총괄 (2010).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Abstract〉

The Feminist Movement and Identity Formation in Universities

- Focusing on Experience of Student
Activists in the 2010s -

Dahae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feminist movement in universities and identity formation focusing on experience of student activists who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feminist groups. The study aims to listen to hands-on experience from student activists in feminist groups and figure out whether a feminist political practice is possible without a premise of a 'unified' feminist identity. Also, the study will examine the status of the feminist movement in Korean university in the early 2010s and forecast the future of the movement.

In the 2010s, the assessment on the reality of the feminist movement in universities has been quite negative. That is because the influence of the feminist movement has diminished in university, and the movement is no longer able to produce visible feminism issues. Some blame the feminist movement for failing to create a unified movement subject.

However, this study questions whether that perspective misinterprets ‘the deconstruction of a category “Woman”’ as ‘the absence of a movement “subject.”’ The discourse environment including college students’ attitude toward ‘feminism’ itself and the identity formation is increasingly complex due to differences among women in reality, the gap between perceptions on gender issues, and antifeminism which is widespread in Korean society. It is, therefore, a mistake to judge the current status of the movement without thorough analysis on the reality.

The perspective that the feminist movement in universities is in crisis due to the difficulty in establishing a movement subject that has common interests requires an agent to have an explicit unified identity as a prerequisite. Unlike conventional social movements, however, informal organizations on the flip side of formal organizations would be of more importance in the feminist movement. Although various interests and needs of individuals in groups related to the feminist movement in university compete with each other, and there are different understandings on feminism, that phenomenon should not be regarded as a factor that could destroy an organization or undermine the capacity of the feminist movement.

With this perspective, the study aims to research a variety of understandings on and attitudes toward ‘feminism’ through the lens of student activists who are participating in feminist groups. Three feminist groups from universities in Seoul were chosen,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embers of the groups the purpose was to identify the close correlation between individual member’s ‘feminist identity’ and their gender and college experience, and their coping strategies against conditions of discourse(antifeminism). In addition, noticing that the student activists continues to keep in touch with feminist groups and participate in such groups though members have different conscious and identities, the study identifies the conflicts each group has faced and how they have come to an

agreement. Given that the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are subjective, participant observation on specific activities of the groups was conducted to complement the data.

The data analysis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ion observation suggested that students participating in activities related to feminism in their universities have constituted their feminist identity in many ways. As for activity patterns, individuals accidentally come by feminism, reinterpret their own gender experience, and constitute new life style, rather than pursuing the feminist movement goals which are shared in the groups. When facing with widespread negative perception toward feminism, they employ four coping strategies to justify or maintain their activity. The strategies are as follows:

1. Revealing one's identity or acting out differently while hiding it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y face;
2. Extending the border of feminism to show it is not female chauvinism or female selfishness;
3. Avoiding internal conflicts or problems regarding feminist identity;
4. Giving an internal meaning to their own activities regardless of others' definition on feminist identity.

It turned out that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have selectively used the strategies according to how they equate their feminism identity with personal identity. Their feminist identity determined understandings and attitudes toward each strategy. Specific remarks and actions revealed the members' diverse identities during communication, where they can feel recognized and reach a consensus. Through the process, individual members could identify 'what is an appropriate act as a feminist, and what practice is appropriate for feminism' at every second.

It is impossible, therefore, to assume there is a 'unified' movement subject

apart from the community dynamic of a feminist group. Also, feminist politics in universities is not based on such subject. ‘Political claims’ are not constituted by an individual, but by members in a group with acknowledgement and a consensus. The assessment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feminist movement in universities based on the analysis is that some feminist politics are being realized in feminist groups regardless of individual feminist identity or the unity of the identity.

However, if there is no organization which guarantees collective activitie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feminist movement in universities will be limited to the small-scale and dispersed movement, or deteriorates though some political activities may be possible in the short term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 For the continuous feminist movement in university, it is necessary to ‘reproduce’ new members as well as store data and record history to pass on a group’s experience. It is also prerequisite to network student activists with various feminist groups to prevent their graduation or changes in one’s life from severing the ties with the feminist movement. That is because what is important in realizing feminist politics is networking with ‘people’ who can verify the legitimacy of activists’ political claims, not whether agents are ‘sharing’ certain ideology and ideas.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which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feminist movement in university through voices of student activities in their twenties, is to reinterpret ‘feminist politics’ and ‘political claims.’ The study tries to go beyond the understandings on ‘politics of identity’ and ‘politics of difference’ which were in a dilemma – the understanding failed to identify the dynamic of the current feminist movement in Korean university – by emphasizing a subject or identity. Also, one of the goals of the study is to identify how personal identity and community’s activity are renewed and constituted through interaction between them. In doing so, the study ultimately aims to transform the theoretical focus of the feminist politics into

a matter of 'political practice.' 'Political claims' are not constituted by an isolated individual, but by members in a group through interaction since a feminist movement subject is constituted through gender relationships and collective practices.

Keywords: feminist movement in universities, antifeminism, flexibilization of feminism, coping strategy, 'political claims,' feminist politics

Student Number: 2010-20205